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Joy is strength!

기쁨은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는 삶이요,
표징이자 성품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December 2022, 12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화요일 · Tue
11
2022 JANUARY

노아가 함을 저주하다

Noah cursed Ham

4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60

1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1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과 같습니다.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3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5

백집기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노아와 맺으시며 그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보여주셨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잠든 자신의 모습을 목격한 아들 '함'을 저주하여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하였습니다.

1

새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2

묵상·창세기 9:20-27

3

통독·창세기 9장

6

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려매

23 셜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 또 이르되 셜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셜의 종이 되고

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셜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친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Noah, who worshipped God with burned offerings, was blessed by God to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God made a covenant with Noah to never again destroy living creatures with a flood and as proof showed the rainbow in the cloud. Noah was drunk with wine and fell asleep and his naked body was exposed to his son, Ham, whom Noah cursed to be slaves of his brothers.

🎵 Hymn 393 Great is Thy Faithfulness

Meditation • Genesis 9:20-27

Reading Plan • Genesis 9

20 Noah began to be a man of the soil, and he planted a vineyard.

21 He drank of the wine and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 his tent.

22 And Ham, the father of Canaan, saw the nakedness of his father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23 Then Shem and Japheth took a garment, laid it on both their shoulders, and walked backward and covered the nakedness of their father. Their faces were turned backward, and they did not see their father's nakedness.

24 When Noah awoke from his wine and knew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25 he said, "Cursed be Canaan; a servant of servants shall he be to his brothers."

26 He also said,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27 May God enlarge Japheth, and let him dwell in the tents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와 이에 함께 경고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3-4절)

What was the food given by God and the accompanying warning? (9:3-4)

경고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5-6절)

Please meditate deeply on the meanings contained in the warning. (9:5-6)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목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영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금원재(AK)
기쁨의 교회, 장준식(A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새해의 소망 VS 믿음 Hope and Faith in the New Year

2022년 새해의 첫 날입니다. 2020년도 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첫 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팬데믹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재정적 상황 등, 과거 보다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요. 여러분도 새해를 향한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새해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언약이자 반드시 이루어질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섭리, 뜻, 계획'이자, 사람들의 그것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겠지만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 '섭리, 뜻, 계획'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창세기 1장1절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이 믿음 위에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믿음이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새해의 소망을 구하시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2022. The pandemic which began in 2020 changed our lifestyle but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still brings us new expectations and hope. We expect a better future than the past and make wishes like the end of the pandemic coming soon, good health for family members, good conditions at children's schools, good financial conditions for family, etc. I can guess that you all have y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for the new year. Did God also have His own expectations and hopes as He created the world with His "Word"?

God's Word by itself is the promise and the command that would be fulfilled with certainty. Therefore,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God, that is,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would clearly be different from those of humans. O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we may have a myriad of 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but as believers we must first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our Lord -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 because our faith is built on Genesis 1:1. Unless we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in life based on our belief in the Word, "God created the world," our faith will eventually be shaken. I pray that we begin the new year today by seeking hope in the new year based on our faith in the Word.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4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5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7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3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7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 문제없다

1 시간을 정해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바>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목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 SATURDA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마태복음 Matthew 3-4장 □ | 2 마태복음 Matthew 5장 □ | 3 마태복음 Matthew 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마태복음 Matthew 9장 □ | 8 마태복음 Matthew 10장 □ | 9 마태복음 Matthew 11장 □ | 10 마태복음 Matthew 1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마태복음 Matthew 15장 □ | 15 마태복음 Matthew 16장 □ | 16 마태복음 Matthew 17장 □ | 17 마태복음 Matthew 18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마태복음 Matthew 21장 □ | 22 마태복음 Matthew 22장 □ | 23 마태복음 Matthew 1장 □ | 24 마태복음 Matthew 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마태복음 Matthew 25장 □ | 29 마태복음 Matthew 26장 □ | 30 마태복음 Matthew 27장 □ | 31 마태복음 Matthew 28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1 November</p> <table border="1">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1</td><td>2</td><td>3</td><td>4</td><td>5</td><td></td></tr> <tr><td>6</td><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r> <tr><td>13</td><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r> <tr><td>20</td><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d>26</td></tr> <tr><td>27</td><td>28</td><td>29</td><td>30</td><td></td><td></td><td></td></tr> </table> | S | M | T | W | T | F | S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p>01 January</p> <table border="1">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r> <tr><td>8</td><td>9</td><td>10</td><td>11</td><td>12</td><td>13</td><td>14</td></tr> <tr><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d>21</td></tr> <tr><td>22</td><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d>28</td></tr> <tr><td>29</td><td>30</td><td>31</td><td></td><td></td><td></td><td></td></tr> </table> | S | M | T | W | T | F | S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
| S | M | T | W | T | F | 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 | M | T | W | T | F | 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30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겸손

Humility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Why _ 왜 읽어야 할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분 안에 있는 깊은 겸손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What _ 어떤 보배인가

책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목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에 관한 것이다. 그가 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Chapter 4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마 11:29)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 20:24)

우리는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겸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을 가르치셨는지 살펴보시다. 그가 겸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듯이 제자들에게 얼마만큼의 겸손을 기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진정으로 가르치셨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 예수님께서 대중에게 가르치실 때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 팔복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3, 5)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즉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 즉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2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를 얻으리니”(마 11: 29).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선생님이 라고 칭하십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

다. 겸손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며 겸손을 통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perfect rest of soul)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제자들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눅 9:46; 마 18:3).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두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4)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참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천국에서 으뜸가는 영광(the chief glory of heaven)이고 가장 큰 은혜(the chief of the graces)이며 진정한 신성함(the true heavenly-mindedness)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자니라”(눅 9:48).

4 세배대의 아들이 예수님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이 얻을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러한 자리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잔과 세례(the cup and the baptism of humiliation)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우리의 겸손의 정도에 따라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달라질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최고에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 예수님께서서는 높은 자리를 사모하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 23: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사다리(the only ladder to honor)입니다.

6 한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우화를 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오직 이 길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자기를 낮추는(self-abasement) 사람만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7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께서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8: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임재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된 겸손의 한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8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난 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의 권위(authority of command)와 그가 보여주신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생각들로 인해 우리는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으뜸가는 제일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9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제일 큰 자인지에 대해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 22: 25-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열어 주신 그 길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종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겸손의 길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구원의 능력이자 정신이며 겸손으로 인해 세상이 구해졌습니다.

마태복음

Matthew

이야기로 알아보는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라 불려지는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 언약이 주어졌다면 신약은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책임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은 언약의 성취의 역사를 보여주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자주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에 기반한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자주 인용하고 유대적 논쟁 방식을 취하는 등 유대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복음서들 중 '교회'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언급한 책이기도 합니다(이는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확실히 독립된 별개의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자 및 저술 시기

마태복음의 저자와 저술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AD 70년 이후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AD 90~95년 사이에 유프라테스 계곡에 가까운 안디옥 동편 지역의 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에 의해 쓰여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헬라어

를 구사하면서 유대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록목적

예수님의 부활 이후 기독교 복음은 유대 지방은 물론 지중해 지방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속한 공동체가 있던 안디옥에도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언급된 것처럼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있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후 여러 곳으로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 중심의 가정교회들도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들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훼손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새 계약의 주체가 되는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위주로 구성된 마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설교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광야의 시험, 권세 있는 가르침과 기적, 제자들의 선택과 파송, 천국에 대한 변증, 제자들의 고백과 십자가를 가르침, 논쟁들, 십자가와 부활 등 기독교의 주요 교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일종의 교훈서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무엇보다 유대인의 성경(구약)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셔서 새 언약 백성들을 모아 구원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계획)을 계시하는 내용으로 저자가 그 중심 테마를 이야기 형식을 통해 기록한 신앙적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성취하는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이십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마태복음 여러 곳에서 제자들의 자세와 각오, 갖추어야 할 태도들에 대해 말씀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는 좁은 의미로는 '열두 제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요구됩니다. 곧 세상을 향하는 육신적인 욕구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고난에 참 기쁨이 있고 영적 성숙의 비결이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목요일 · Thu

01

2022 December

광야에 길을 내라

Prepare the Way
in Wildernes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3장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킨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시험받을 때에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 곧 제자들을 부르시며 구원의 사역에 초대하십니다.

🎵 새88장(통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묵상·마태복음 3:1-12

통독·마태복음 3-4장

1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5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6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썬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Reading Insight

Chapter Three contains the story of John the Baptist who prepared people to meet Jesus. In Chapter Four, Jesus who came to save the world is tempted. Through his experience of being tempted, Jesus shows us how we can overcome temptations in our life through God's Word. Jesus also calls people to be fishers of men and invites them to the work of salvation as his disciples.

🎵 Hymn88 I Have Found a Friend in Jesus

Meditation • Matthew 3:1-12

Reading Plan • Matthew 3-4

- 1 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preaching in the wilderness of Judea,
- 2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 3 For this is he who was spoken of by the prophet Isaiah when he said,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 4 Now John wore a garment of camel’s hair and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and his food was locusts and wild honey.
- 5 Then Jerusalem and all Judea and all the region about the Jordan were going out to him,
- 6 and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river Jordan, confessing their sins.
- 7 But when he saw many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oming to his baptism, he said to them,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 8 Bear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 9 And do not presume to say to yourselves,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for I tell you, God is able from these stones to raise up children for Abraham.
- 10 Even now the axe is laid to the root of the trees. Every tree therefor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 11 “I baptize you with water for repentance, but he who is coming after me is mightier than I,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carry.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 12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and he will clear his threshing floor and gather his wheat into the barn, but the chaff he will burn with unquenchable fir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한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What message did John the Baptist preach in the Judean wilderness? (v. 2)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맺으라고 한 열매는 무엇인가요? (8절)
When the Sadducees and Pharisees came to where John was baptizing, what fruit were they told to bear in their life? (v.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 최기환(IL)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일(IL)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광야의 목소리 A Voice of Wilderness

마태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는 외침은 당연한 듯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받는 자리에 나아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른 냉철한 심판의 목소리도 함께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12월의 첫날을 시작하셨나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때론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길ियो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이 방향을 잃은 듯한 광야 같은 삶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나 듣지 않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따라라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철저히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서 시작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Matthew tells the story of what must be fulfilled in Jesus. The message that John the Baptist is preach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is a message that all people must hear. Many people came out, repented of their sins, and were baptized. But there is also another message in this story, which is a message of judgment. To the Pharisees and Sadducees, John the Baptist cried out “You brood of vipers!” Which voice do you hear as you begin the month of December? As people who have become children of God through baptism, would you say that you are living your life differently from those who are called the “brood of vipers?” Preparing the way in the wilderness is not about ourselves creating a new path but is more about living our life following Jesus, who is the Way. In a world that seems like a wilderness with no clear path, it is important to follow Jesus. Therefore, we need to listen to the crying voices in the wilderness.

Hear! O Israel! God told the people of Israel countless times. But people refused to listen to God, so God sent Jesus and is now asking us to follow Jesus. As we wait for the coming of the Lord in this season of Advent, it is my prayer that we will get ready to follow Jesus. Even when life seems like passing through a wilderness, may we live each day hearing and following the voice of the Lor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금요일 · Fri

02

2022 December

하나님의 방식

The Way of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입을 열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라는 것 이상의, 말씀 속 깊이 복 있는 사람(행복한 사람)에 대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로잡으시고 직접 알려주시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 새199장(통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묵상·마태복음 5:1-12

통독·마태복음 5장

-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상을 뒤집어라 Turn the World Upside Down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뒤집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서 바뀔까 하며 자신감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뒤집어 버릴 기회조차 찾으려 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유도에 뒤집기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태권도만 해봐서 유도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경기를 보다 보면 한동안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같이 밀리다가도 이기는 것을 봅니다. 끝까지 기회를 보고 잘 유도하다가 결정적일 때 온 힘을 다해 뒤집으면 한판승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반전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천국을 얻는다, 위로를 받는다, 땅을 상속받는다, 배부를 것이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뒤집기의 순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라! 우리가 받을 상이 크고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잡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포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바로 잡힌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Sometimes, we want to turn the world upside down because there are many things that need to drastically change. But when we think about how we can bring about needed change, we struggle knowing where to begin. Many of us also wonder if what we do will ever be enough to bring the needed change. So we may give up on the idea of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In judo, there is a technique of flipping over the opponent. Although I have never tried judo myself, I have seen in many judo matches where a person who had little chance of winning accomplish a surprising win over the opponent who seems stronger and bigger. In the match, the person who seems overpowered cautiously waits for the right opportunity and, when he or she gets the opportunity, they put the technique to work and flip the opponent for a decisive victory.

Today's message is a message of reversal because it talks about people who don't seem to measure up in the standards of the world but are promised to receive the blessing of the kingdom of heaven, receive comfort, inherit the earth, and be filled. When the world seems to be heading in the wrong direction, it is important for us to stay vigilant and look for an opportunity to change things around. Jesus tells us that we should rejoice and be happy because there is a great prize prepared for believers and that we will live a truly happy life in this world. We as believers have the calling to turn this world around. Let us remember that Jesus is coming to this world, not to give up on this world, but save this world and live a life of hope.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전교회, 우민혁(II)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김태준(I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토요일 · Sat

03

2022 December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들의 관심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 기도는 필수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영원한 가치를 향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 새365장(통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묵상·마태복음 6:5-15

통독·마태복음 6장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Reading Insight

The prayer that the Lord taught makes us examine the focus of our life in this world, which is establishing God's kingdom here on earth. Prayer is indispensable to realizing God's kingdom on earth. The Lord's Prayer teaches what it means for God's people to seek God's kingdom and God's righteousness in this world through praise and prayer.

🎵 Hymn365 Are You Weary

Meditation • Matthew 6:5-15

Reading Plan • Matthew 6

5 “And when you pray, you must not be like the hypocrites. For they love to stand and pray in the synagogues and at the street corners, that they may be seen by others. Truly, I say to you,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6 But when you pray, go into your room and shut the door and pray to your Father who is in secret. And your Father who sees in secret will reward you.

7 “And when you pray, do not heap up empty phrases as the Gentiles do, for they think that they will be heard for their many words.

8 Do not be like them,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9 Pray then like this: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10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11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12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13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14 For if you forgive others their trespasses,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15 but if you do not forgive others their trespasses, neither will your Father forgive your trespass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개인적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요? (5-6, 7-8절)

How should one pray?
(vv. 5-6, 7-8)

우리가 용서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14절)

What happens when we forgive others? (v. 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샘물연합감리교회, 박미숙(IL)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 조선형(IL)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산상수훈의 핵심 The Core of the Sermon on the Mount

김형국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핵심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앞뒤로 이방인의 기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앞뒤로는 자선과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며, 마지막으로 가장 겉껍질이 그리스도인의 정체감과 그 표지인 열매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두꺼운 샌드위치의 핵심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샌드위치로 말하자면 치킨샌드위치에서 치킨을 빼면 치킨샌드위치가 아니고 햄샌드위치에서 햄을 빼면 햄샌드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샌드위치에서 신앙생활, 그 중에서 기도, 그중에 주기도문을 빼면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자리 잡는다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Reverend Hyung Kook Kim says the following in his book entitled, “The Lost Lord’s Prayer of the Korean Church.” At the core of the Sermon on the Mount is the Lord’s Prayer. Before and after the Lord’s Prayer, we find a teaching on hypocrites’ prayer and forgiveness. Before and after the teaching on the prayer, we find a teaching on giving to the needy and fasting. As a whole, these teachings together describe a life of faith, which is sandwiched by a new way of life for Christians. Ultimately, these teachings show us the true identity of believers and the fruit that all believers must bear. At the very heart of the Sermon on the Mount, we find the Lord’s Prayer.

When we remove chicken from a chicken sandwich or remove ham from a ham sandwich, it is no longer a chicken sandwich or a ham sandwich. Similarly, the life of faith, especially prayer, and specifically the Lord’s Prayer, make up the heart of the sandwich called “the Kingdom of God.” If we were to remove them, then we have removed the most important part from the Kingdom of God.

A person of prayer is one who ha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person to whom one is praying. That person is also one who continues to seek the Kingdom of God in one’s life. I pray that you will live a life of prayer as you wait for the coming of the Lord. When prayer is at the very heart of our life, we will live our life experiencing the Kingdom of God her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제 목
T i t l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Title]

성경 본문
S c r i p t u r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Scripture]

주요 내용
O u t l i n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 o d ' s V o i c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믿음

오인호 목사 (창대교회, 성남)

사람이 무엇을 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똑같은 곳을 주시하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만 보인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믿는 만큼 압니다. 기독교 신앙은 더욱 그러합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이 논리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으로만 형성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 알게 됩니다. 손에 쥐여줘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러합니다. 많은 기적을 목격하였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으로 오천 명이나 배불리 먹었던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던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도 잠잠하게 하는 기적을 보면

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창조의 권위에 대한 피조물의 순종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직접 눈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한 분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입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음으로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믿음으로 볼 수 없을 때 그들은 그 땅을 소유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출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월요일 · Mon

05

2022 December

최고의 가르침

The Best Teach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7장에서는 간단한 행동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폭풍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가르쳐줍니다.

🎵 새204장(통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묵상·마태복음 7:21-29

통독·마태복음 7장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Reading Insight

Matthew 7 is a collection of simple rules of action. But the guideline for discernment is to follow the will of God. It asks for fruitfulness when acting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It teaches us of life that will withstand storms.

🎵 Hymn204 Those Who Hear and Do the Word

Meditation • Matthew 7:21-29

Reading Plan • Matthew 7

21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22 On that day many will say to me,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cast out demons in your name, and do many mighty works in your name?’

23 And then will I declare 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orkers of lawlessness.’

24 “Everyone then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them will be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25 And the rain fell,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on that house, but it did not fall, because it had been founded on the rock.

26 And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do them will be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sand.

27 And the rain fell,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 and great was the fall of it.”

28 And when Jesus finished these sayings, the crowds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29 for he was teaching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and not as their scrib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나요? (21절)

Who does the Bible say may enter the kingdom of God? (v. 21)

왜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을까요? (29절)

Why was the crowd surprised at the teachings of Jesus? (v. 2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ILL)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이동근(IL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말씀 위에 서라 Stand Firm on the Word

세상의 뉴스를 말씀보다 더 많이 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읽어야 할 책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YouTube 채널에 올라온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느라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세상의 뉴스,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 지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자극적이지도 또한 재미가 있지도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라 합니다. 모든 일에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춧돌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지식과 가르침들은 집안의 장식과 같아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리 집안에 화려한 장식을 해 놓았다 해도 태풍이 불면 그 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가르침이 되어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최고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신 살아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We live in a world where the news of the world overwhelms the Word of God. There are so many books to read. We spend a good part of the day watching YouTube. I hope we spend more time opening the Bible and meditating than listening to today's worldly news or knowledge. But that is not easy because the Bible may not be provocative or fun in many cases.

When we build new houses, people say that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e foundation. We all know that strong basics are most important in all things. God said that the Word of God is like the cornerstone. That is why we have to build our life on the Word of God. The worldly knowledge and teachings that we consider important are like decorations in our house. If they are in our possession, that's okay, but if they are not, that's okay too. However, if we build our house on sand rather than on the Word of God, we don't know when the house may fall, and no matter how beautiful the decorations the house will collapse instantly when the storm comes.

I hope that the teachings of Jesus are the best teachings for our lives and manifest themselves through our lives. The teachings of Jesus are the best because Jesus came to this world and lived His life according to His Word, obeyed the Word, and lived the Word. Therefore, His teachings are living proof.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화요일 · Tue

06

2022 December

생명을 따르라

Follow the Sou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께서는 나병환자와 백부장의 하인과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아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다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도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 새432장(통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묵상 · 마태복음 8:18-27

통독 · 마태복음 8장

18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19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도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도되 예수께서는는 주무시느니라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Reading Insight

Jesus healed the lepers, the centurion's servant, and so many others. He fulfilled the prophecy of Isaiah when "he took up our infirmities and carried our diseases." Then, He called His disciples to help save the sinners.

🎵 Hymn432 With Christ as My Pilot

Meditation • Matthew 8:18–27

Reading Plan • Matthew 8

18 Now when Jesus saw a crowd around him, he gave orders to go over to the other side.

19 And a scribe came up and said to him, "Teacher,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20 And Jesus said to him, "Foxes have holes, and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21 Another of the disciples said to him, "Lord, let me first go and bury my father."

22 And Jesus said to him, "Follow me, and leave the dead to bury their own dead."

23 And when he got into the boat, his disciples followed him.

24 And behold, there arose a great storm on the sea, so that the boat was being swamped by the waves; but he was asleep.

25 And they went and woke him, saying, "Save us, Lord; we are perishing."

26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afraid, O you of little faith?" Then he rose and rebuked the winds and the sea, and there was a great calm.

27 And the men marveled, saying, "What sort of man is this, that even winds and sea obey hi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며칠만 달라고 한 것을 왜 거절하셨을까요? (22절)

Why did Jesus refuse the disciple's request for time to bury his dead father? (v. 22)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25절)

How did His disciples react when encountering the storm? (v. 2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폭풍 속의 은혜 Grace in the Midst of the Storm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일상을 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마주할 때 나에게 기억되는 것은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살아온 수많은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죽음이 가장 가까이 있기에 현재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오는 대사 중 나오는 라틴어 "카르페 디엠(Carpe diem)"의 뜻은 '현재를 즐겨라'입니다. 로마제국의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지치고 상한 로마 시민들에게 이제 로마의 평화가 왔으니 마음 편히 쉬라는 뜻으로 시인 호라티우스는 자신의 시집에 카르페 디엠이라 썼다고 합니다.

죽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회에서 우리는 현실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현재를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We do not fully understand the love of God. Striving towards the immense love of God, we should live our daily lives learning and meditating on the Word of God without pausing. When we face death, what we remember is not the moment of death but countless hours of our life. That is why we need to do the best with our lives that are given by God. I hope we live our lives discovering the grace of God even in the midst of the storm and never give up.

Even though death may not be imminent, because we are alive, we can think about death. The Latin expression "carpe diem" that appeared in the movie "Dead Poets Society" means "seize the day." The ancient poet Horace wrote in his poem book the phrase "carpe diem" to encourage the citizens of Rome who were exhausted and hurt due to prolonged wars of the Roman empire to take it easy and rest because Pax Romana had arrived.

In a society full of dead Christians, how faithfully are we living in the present? God does not force us. God helps us live in the present as well as we can and is with us. I hope today is another day when we hear God telling us to follow our soul. I want to obey God's voice with faith. The grace of God saves us even in the midst of the storm.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중앙연합감리교회, 홍진호(IL)
하이드팍한인교회, 이우민(IL)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수요일 · Wed

07

2022 December

믿음의 친구들

Friends of Fait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9장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친구들의 믿음, 혈루증 앓는 여자의 믿음, 눈먼 자들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기적들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추수할 믿음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 새543장(통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묵상·마태복음 9:1-8

통독·마태복음 9장

- 1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 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3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 4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 5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 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 7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 8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Reading Insight

Matthew 9 is a story about people of faith. It is a story of people's faith: a story of the faith of friends of a paralytic who brought the patient to Jesus; a story of the faith of a woman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and a story of the faith of two blind men. The miracles performed by the Lord were proof that Jesus was the promised Messiah. Even today Jesus is looking for workers of faith to harvest.

🎵 Hymn543 Simply Trusting Every Day

Meditation • Matthew 9:1-8

Reading Plan • Matthew 9

- 1 And getting into a boat he crossed over and came to his own city.
- 2 And behold, some people brought to him a paralytic, lying on a bed. And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paralytic, "Take heart, my son; your sins are forgiven."
- 3 And behold, some of the scribes said to themselves, "This man is blaspheming."
- 4 But Jesus, knowing their thoughts, said, "Why do you think evil in your hearts?"
- 5 For which i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Rise and walk'?"
- 6 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he then said to the paralytic--"Rise, pick up your bed and go home."
- 7 And he rose and went home.
- 8 When the crowds saw it, they were afraid, and they glorified God, who had given such authority to me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2절)

What did Jesus see in the paralytic that made Him heal and forgive his sins? (v. 2)

가족들과 혹은 믿음의 친구들과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What acts of faith can we do together with our family or our faith companions?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블루밍턴한인교회, 안성용(IN)
인디애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 이기채(IN)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협력하는 믿음의 실천 Deeds of Faith Work Together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의 믿음에는 아픈 친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바쁘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는 마음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에는 아픈 친구를 향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나올 수 있다는 소망으로 그들은 친구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친구들의 믿음에는 행동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소망, 믿음의 실천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은 구경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구경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군중들로 둘러싸인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친구들의 열정을 구경꾼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지혜로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려가는 창의적인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친구들은 서로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필요한 하나 된 마음과 믿음의 협력인지 모르니다. 중풍병의 현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서 어떤 문제든 고쳐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협력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Jesus healed the paralytic because Jesus saw the faith of his friends. The paralytic had faithful friends who helped him come to Jesus. Their faith had love toward their paralytic friend. Life is busy taking care of our own problems, so to be concerned about the pain of others is impossible without love.

The faith of the paralytic's friends contained hope for their friend. They carried their friend to Jesus because they had hope that their paralytic friend would be healed if they brought him to Jesus. The faith of the friends of the paralytic had the power of action. The friends were able to come forward to Jesus because of their love, hope, and action in faith. The faith of the friends was not like the faith of a bystander. The crowds around Jesus were bystanders and the bystanders could not stop the zeal of the friends. The wisdom of faith given by God enabled them to pierce through the roof and creatively bring the paralytic to Jesus. Finally, the friends showed the faith of unity. Maybe unity and teamwork are what we need most in our generation. As Jesus sees our faith when we come together with faith in Him believing that Jesus could and would heal the paralytic, Jesus will heal any problem. I hope and pray that today will be a day to live into our faith by working together with friends in our home and in our churc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목요일 · Thu

08

2022 December

추수할 일꾼

Workers to Harves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일꾼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왕을 위한 사신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 합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선물을 기억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야 합니다.

🎵 새408장(통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묵상 · 마태복음 10:5-16

통독 · 마태복음 10장

5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9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11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라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퍼듀제자교회, 이종민(IN)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 임일호(KS)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평안의 선물 Gift of Comfort

연말이 다가올수록 선물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선물은 참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추수의 일꾼으로 보내시는 장면을 보면서 열약 하더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 자신들 짐도 가볍게 하라 하십니다. 하루 세 끼 먹을 것만 있어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선물이란 것이 어떤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가진 것을 보면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신들 삶을 지키기에도 불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센트럴 파크에 나가 길을 가면 뒤뜰이 있는 집에 살지는 않아도 이렇게 넓은 뜰이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해야지만 내가 가진 것이라 생각하는 시대에 이 같은 생각은 엉뚱하다 들릴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소중한 많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앙에 위치한 센트럴 파크는 아이들의 놀이터이고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는 공간이고 산책하며 사색을 즐기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일반 사람들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선물을 간직하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심각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또 나누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We all have higher expectations for gifts as the year-end approaches. "Gift" is a pleasant word to hear. What are the gifts given to us by God? From today's scripture we see the scenes of calling His disciples and sending them out as His workers for harvest. I cannot but consider the situation difficult. Jesus asked His disciples to travel lightly. If they are fed three meals a day they could continue their tasks. What kind of gifts were the disciples supposed to distribute to people? Looking at what they possessed, it is difficult to find any kind of gift. Because it was difficult to even keep enough for their own livelihood.

But all we have are the gifts of God. When we walk along Central Park, we can enjoy a vast expanse of field. Although it is not our backyard, it is a magnificent gift of God. It may sound strange to a generation that only considers what we actually possess as ours, but at the same time, what our Lord has provided me extends far beyond my imagination. It is much bigger, much more precious, and much more numerous.

Central Park in the middle of Manhattan is a playground for children, a resting place for weary people, and a precious public space to enjoy walking and meditating. It is a place for every ordinary citizen to enjoy together. I hope you will share and keep the gift of comfort that the world cannot offer. I also hope that you are not too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reaction of people. Do not be afraid of being disliked, but rather be afraid of not being able to share the comfort given by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금요일 · Fri

09

2022 December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세례 요한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이 끝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종교 생활에 지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라 하십니다.

새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묵상·마태복음 11:1-11

통독·마태복음 11장

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2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Reading Insight

John the Baptist served God faithfully, but his ministry ended with his imprisonment. People may have thought that he failed. However, John the Baptist was a great prophet. Jesus called the people weary of religious life to come to Him.

🎵 Hymn38 Jesus We Enthroned You

Meditation • Matthew 11:1-11

Reading Plan • Matthew 11

- 1 When Jesus had finished instructing his twelve disciples, he went on from there to teach and preach in their cities.
- 2 Now when John heard in prison about the deeds of the Christ, he sent word by his disciples
- 3 and said to him,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 or shall we look for another?”
- 4 And Jesus answered them, “Go and tell John what you hear and see:
5 the blind receive their sight and the lame walk, lepers are cleansed and the deaf hear, and the dead are raised up, and the poor have good news preached to them.
- 6 And blessed is the one who is not offended by me.”
- 7 As they went away, Jesus began to speak to the crowds concerning John: “What did you go out into the wilderness to see? A reed shaken by the wind?
- 8 What then did you go out to see? A man dressed in soft clothing? Behold, those who wear soft clothing are in kings’ houses.
- 9 What then did you go out to see? A prophet? Yes, I tell you, and more than a prophet.
- 10 This is he of whom it is written,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your face, who will prepare your way before you.”
- 11 Truly, I say to you,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has arisen no one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Yet the on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is greater than h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나요? (7-10절)

What did Jesus call John?
(vv. 7-10)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느 성경 말씀으로 답하셨나요? (5-6절 / 이사야 35장)

What scripture of the Bible did Jesus quote when answering, “Are you the one who was to come?” (vv. 5-6; Isaiah 3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정선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문주현(KS)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송명철(KS)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 왕 예수 Our King, Jesus

헤롯의 심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도 헤롯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또 다른 왕의 등장입니다. 헤롯왕은 요한이 준비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길에 오실 왕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며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어떤 왕이 좋아할까요?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여러분의 심기는 어떤가요? 혹시 다른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 불안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오늘 “나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는 그 능력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툼 라이트의 표현처럼 “요한은 너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예수는 너무 평범해 보였다. 때로는 예수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도 어쨌거나 앞장을 서면서, 마냥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했다. 때로는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도 반복되는 삶이지만 반복되는 진리를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King Herod's mood was not good. The fact that John was locked up in prison made Herod feel uncomfortable. What King Herod feared most was the appearance of another king. What Herod feared most was the king that would come on the holy road that John was preparing and proclaiming. What sitting king would welcome another who proclaimed that he was the “king of Israel?”

What are your honest feelings during Advent while we wait for the coming of Jesus? If you were dreaming and expecting something different, you may feel uncomfortable and uneasy as the day approaches nearer. But if you were really waiting for Jesus, then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feel uncomfortable on account of me.” You must know that you are the truly blessed one because we are waiting for the power of Jesus who makes the weak hands strong and the trembling knees firm. As Thomas Wright put it, “John appeared to be out of his mind, and Jesus looked too plain. We must admit that people sometimes do not understand Jesus, and he must have come forward and would have repeated the same story again and again. Sometimes we may be the same.” Our lives may be repetitive, but I pray that we can live following the same repeated tru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토요일 · Sat

10

2022 December

사랑이 먼저입니다

Love Firs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도 율법주의에 눌러 그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를 우리도 행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새15장(통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묵상·마태복음 12:1-13

통독·마태복음 12장

- 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 3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 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니라
-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 9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 10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 이까
-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Reading Insight

The religious leaders were looking for an opportunity to attack Jesus. Though they were able to observe the true sabbath they could not see it because of pressure under the laws. Let us see if we practice mercy as the Lord of the Sabbath Jesus commands us.

🎵 Hymn15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Meditation • Matthew 12:1-13

Reading Plan • Matthew 12

- 1 At that time Jesus went through the grainfields on the Sabbath. His disciples were hungry, and they began to pluck heads of grain and to eat.
- 2 But when the Pharisees saw it, they said to him, “Look, your disciples are doing what is not lawful to do on the Sabbath.”
- 3 He said to them, “Have you not read what David did when he was hungry, and those who were with him:
4 how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ate the bread of the Presence, which it was not lawful for him to eat nor for those who were with him, but only for the priests?
5 Or have you not read in the Law how on the Sabbath the priests in the temple profane the Sabbath and are guiltless?
6 I tell you, something greater than the temple is here.
7 And if you had know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and not sacrifice,’ you would not have condemned the guiltless.
8 For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 9 He went on from there and entered their synagogue.
- 10 And a man was there with a withered hand. And they asked him,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so that they might accuse him.
- 11 He said to them, “Which one of you who has a sheep, if it falls into a pit on the Sabbath, will not take hold of it and lift it out?”
- 12 Of how much more value is a man than a sheep! So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
- 13 Then he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And the man stretched it out, and it was restored, healthy like the ot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하십니까? (8절)

Who did Jesus say was the Lord of the Sabbath? (v. 8)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게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뭐라고 답하셨나요? (11-12절)

What was Jesus' answer to this question, “Is it lawful to heal on Sabbath?” (vv. 11-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People Are Important

우리도 살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너 그렇게 사니까 넘어지지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했어.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며 사람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옳은 길을 제시하려 인간힘을 쓰지만 이런 말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냥 다가와 진심 어린 “Are you Ok?” 한마디면 되는데 말입니다.

규정이 중요하지만 그 규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규정보다 더 먼저인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밭에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 곡식 이삭을 따서 먹은 것을 지적하고 장소를 옮겨 회당에 들어와 일어난 일을 지적합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에는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길 원하는 사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귀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어쩌면 이 순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일이 먼저인 하루 되길 바랍니다.

Sometimes we stumble in our lives. Someone says, “You fell because of this and that, why did you rush, next time do this and that,” analyzes the situation, passes judgment, and tries to offer advice but all of these are of no use. Sometimes, a genuine expression of “Are you OK?” would suffice.

Rules are important but sometimes we ask who the rules were made for and in what context they were made. Today’s scripture mentioned what happened at the grainfields where His disciples picked some heads of grain and ate them because they were hungry, and Jesus pointed out what happened at the house of God. There was a man with a shriveled hand. They asked again,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Questions usually contain the intent and the mindset of the questioner. The question asked of Jesus was not interested in the welfare of the person to be healed. Its sole intent was to trap Jesus. Jesus proclaimed that “People are most dear. People are important.” As written in today’s scripture, “How much more valuable is a man than a sheep.”

Maybe even at this moment, the main interest of the disciples was “How would I answer the Pharisee’s question? What is correct?” On the other hand, Jesus’ interest lay elsewhere. I hope today is another day for you to love others first while you place your interest in the will of the Lord.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 정룡재(KS)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상순(K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제 목
T i t l e

[Blank area for Title]

성경 본문
S c r i p t u r e

[Blank area for Scripture]

주요 내용
O u t l i n e

[Blank area for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 o d ' s V o i c e

[Blank area for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이제라도

막4:35; 마8:24; 눅8:22

정창호 장로 (샌디애고한인연합감리교회)

파도가 치고 광풍이 일어나면
 적당히 편한 곳에 정박하고 싶은 마음인데
 호수 저편보다 더 좋고 안일한 듯 하면 바로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호수 저편이려니 할 터인데.
 누군가가 손짓하여 잡으려 하면 때로는 호수 저편을 잊어버리고
 잠시 쉬었다가 가던길을 머뭇거리려 할 터인데.
 호수 저편을 가자고 하신 나의 주님은
 광풍을 일으키시고서 주무신다.
 배가 부서질 듯한 그 광풍 속에서.

나의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호수 저편
 이제 내가 가야 할 호수 저편은 어디인가! 그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그 호수 저편의 길에서 내가 만나는 광풍은 무엇이며 파도는 무엇이며
 배에 가득 채워진 물은 또한 무엇인가!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그 어떤 광풍인가?
 도덕적인 무질서와 문란은 파도인가?
 경제적인 빈곤은 배에 가득 채워진 물인가?
 자녀 교육문제는 또 다른 광풍인가?

나의 건강이 좋지 않음은 그 무슨 파도이며, 직장 문제는 또한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주무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는데...
나에겐 이런 일들로 인해 안식이 없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셨던 호수 저편 마저도 어디인지 막연해지기만 함은
무엇 때문인가!

정녕 나의 믿음 없음이 안식을 빼앗아 가는구나!
믿음 없음이 광풍과 파도와 배에 가득 채워진 물을 원망하게 하고
믿음 없음이 이젠 예수님의 주부시고 계심을 원망하게 하는구나!
나의 믿음 없음이
이런 일들로 인해 “.... 죽겠나이다”라는 탄식을 발하게 한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눈에 보이는대로 행하는 이 믿음 없는 세대에 스스로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믿사오니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제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제라도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호수 저편을 향한 나의 믿음의 근거를
바로 잡아주소서.
이제라도.

아 - 멘

월요일 · Mon

12

2022 December

왜 이야기인가?

Why Parabl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일까요? 비유(parable)라는 말은 “옆으로 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진리에 마음과 눈과 귀를 열게 하시기 위해 이야기로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 새366장(통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묵상·마태복음 13:11-17

통독·마태복음 13장

11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 이동섭(LA)
리스빌연합감리교회, 나길석(L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바로 보고 바로 듣기

See Things Right and Hear Things Right

크게 들리는 것만 듣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이 시대에 서로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의미를 어떻게 땅에 간직할 수 있는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 그 마음 상태를 땅에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주위에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잘 배려하고 들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기 보다 하늘과 땅을 나누기 보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고 들어야 하는 우리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둠 뒤에 가려진 빛을 보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비유가 바로 우리가 씨앗을 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더 강해 보이고 그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씨앗, 겨자씨 하나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라고 나면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둥지를 틀 만큼 커집니다. 심지어 독수리도 둥지를 틀니다. 우리들도 바로 듣고 바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 시키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독수리가 힘차고 멋지게 날개 치며 오르듯 말입니다.

In this generation where we hear only loud voices and believe only what we see with our own eyes, I wish we could understand each other's thoughts and hear Jesus' parables. Jesus speaks to us in parables. Jesus speaks to us in the parable about a seedling to tell us how we can apply heavenly meaning to this earth. The listener should practice this mindset here on earth. Who are the people with a good mindset? I am sure you can find someone around you that can be described as a good person. Upon careful observation, that person is not without their own thoughts or discernment, but must also be one who listens carefully and cares for others' thoughts well.

Rather than separate the day and the night, and rather than separate the sky and the land, we must try to make sure that our eyes and ears are not blocked so that we can see and hear the will of heaven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I hope that we do not lose our ability to see the light hidden behind the dark.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 tells us why we must not stop planting seeds. Though the power of darkness appears to be strong in this world and many more dark voices appear to be heard, a very small mustard seed is still growing somewhere even now. And when it grows, it grows so large that the birds of the air will perch in its shade. Even the eagles will build a nest. We also must hear and see things with truth and must join the ministry to expand the territory of the kingdom of God as if soaring on strong eagles' wing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화요일 · Tue

13

2022 December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죽음으로 슬프고 실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열두 제자는 오천 명을 먹이기 위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 새565장(통300장) 예수께로 가면

묵상·마태복음 14:13-21

통독·마태복음 14장

- 13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 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 1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 18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Reading Insight

The disciples of John the Baptist were sad and despaired at his death. The disciples told Jesus the news. The disciples brought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to Jesus to feed the crowd of five thousand people. When Peter saw Jesus he was able to walk on the water.

🎵 Hymn565 If I Come to Jesus

Meditation • Matthew 14:13-21

Reading Plan • Matthew 14

13 Now when Jesus heard this, he withdrew from there in a boat to a desolate place by himself. But when the crowds heard it, they followed him on foot from the towns.

14 When he went ashore he saw a great crowd, and he had compassion on them and healed their sick.

15 Now when it was evening,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said, “This is a desolate place, and the day is now over; send the crowds away to go into the villages and buy food for themselves.”

16 But Jesus said, “They need not go away;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17 They said to him, “We have only five loaves here and two fish.”

18 And he said, “Bring them here to me.”

19 Then he ordered the crowds to sit down on the grass, and taking the five loaves and the two fish, he looked up to heaven and said a blessing. Then he broke the loaves and gave them to the disciples, and the disciples gave them to the crowds.

20 And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y took up twelve baskets full of the broken pieces left over.

21 And those who ate were about five thousand men, besides women and childre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많은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걱정하는 남선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16절)

What did Jesus say to the disciples who were worried about feeding supper to so many people? (v. 16)

예수님께서 축복기도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무리에게 누가 음식을 나누어 주었나요? (19절)

Jesus looked up to heaven and gave thanks, broke the loaves, and gave them to the disciples. Who gave food to the crowd? (v. 1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져가라 Bring to Jesus

예수님은 멀리 음식을 가지러 갈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늘 그랬듯 어리둥절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을로 돌려 보내 밥을 먹게 할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제자들은 늘 그랬듯 당황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그것도 아이가 먹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 가져오너라.”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준비할 것은 나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져갈 선물입니다. 잘 준비하고 있나요? 아직도 여전히 매년 예수님의 선물을 빼앗아 갈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예수님 생일파티 분위기를 훔쳐가 내가 즐기고 놀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번 대강절에는 예수님께 가져가는 연습을 더 많이 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게 주신 것 중에, 내 삶에 허락하신 것 중에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연습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작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Jesus said there was no need to bring food from far away. The disciples as usual were puzzled. Then Jesus said, “They do not need to go away.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As usual the disciples were surprised. “We have here only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Even those are for children.)” Then Jesus said, “Bring them here to me.”

As Christmas approaches what you need to prepare is not gifts for friends, but gifts to bring to Jesus. Are you preparing well? Instead, aren't you thinking about taking gifts from Jesus as you do every year? Aren't you also thinking about taking the birthday party atmosphere meant for Jesus and instead enjoying and celebrating for yourself?

During this Advent season, I hope you practice bringing gifts to Jesus. From what I have, from what has been given to me, and from what has been permitted in my life, I intend to practice bringing to Jesus whatever may be useful for His ministry. They may look small to us but Jesus will see the hearts and faith of those bringing these gifts to Him.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보스톤연합감리교회, 안신형(MA)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최진용(M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수요일 · Wed

14

2022 December

자비를 베푸소서

Bestow Us
Your Merc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론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공동체의 역할을 찾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묵상·마태복음 15:21-28

통독·마태복음 15장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 시나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Reading Insight

The disciples had no idea what would happen next. How do we react during times of distress? From the three examples in Matthew 15, we learn about the roles of our faith community toward neighbors in need of help that is sometimes not apparent.

🎵 Hymn 218 Love Your God with Your Heart and Your True Mind

Meditation • Matthew 15:21-28

Reading Plan • Matthew 15

21 And Jesus went away from there and withdrew to the district of Tyre and Sidon.

22 And behold, a Canaanite woman from that region came out and was crying, “Have mercy on me, O Lord, Son of David; my daughter is severely oppressed by a demon.”

23 But he did not answer her a word. And his disciples came and begged him, saying, “Send her away, for she is crying out after us.”

24 He answered, “I was sent only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25 But she came and knelt before him, saying, “Lord, help me.”

26 And he answered,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hrow it to the dogs.”

27 She said, “Yes, Lord, yet even the dogs eat the crumbs that fall from their masters’ table.”

28 Then Jesus answered her, “O woman, great is your faith! Be it done for you as you desire.” And her daughter was healed instantl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여자는 드문 표현을 하는데 그제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으로 뭐라 불렀나요? (22절)

The woman used a rare expression to call Jesus – not “teacher.” What did she first call out to Jesus? (v. 22)

예수님은 여자의 요청에 처음은 침묵으로 두번째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24절)

Jesus first reacted to the request of the woman with silence, but how did He react the second time? (v. 2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전교회, 이충호(MA)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 조상연(M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공동체 역할 The Role of the Community

아프리카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음은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공동체의 일부로 살아갑니다. “내가 있음은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1인 가구가 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족이 누구인지 묻게 됩니다. 함께 밥을 나누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 함께 삶을 나누고 밥을 나누며 살아가기에 교회 공동체를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보다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역할은 과소평가되기 쉽고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는 우리들이 넘어야 할 편견과 마주하게 합니다.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침묵과 말씀은 제자들의 시선에 맞춰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개와 돼지를 멸시하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요즘 애완동물 개와는 다릅니다. 여인은 곳곳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고는 절박하게 다시 말합니다. “예, 주여, 그러나 그 작은 개들도 주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도 너희들은 마음이 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한 개인의 책임으로 지우는 것은 침묵을 넘어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살리는 공동체의 역할을 회복해 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African biblical scholars say something like, “I exist because We exist.” An individual lives as part of the community. We can say, “I exist because my family exists.” As our generation experiences the steady increase of one-member families, we question who our family is. We call those who share meals together a family, and as we meet fellow Christians at church and share meals and share life together, we can call the church community our family.

We live in this world where it is more important to know who I am than to what community I belong. Therefore, it is easy to undervalue the role of the unseen community and treat it as unimportant. The story of the syrophenician (Canaanite) woman is also a present day prejudice that we need to overcome. The silence and then the reply of Jesus to the woman was intended to match the intellectual level of His disciples. Jesus used parables mentioning dogs and pigs that were despised in the middle east. Dogs at that time were not the same as present day pets. But the woman continued her dialogue with Jesus unswervingly. She said again in desperation, “Yes, Lord, but even the dogs eat the crumbs that fall from their masters’ table.” Jesus was teaching how crooked and wrong our community was – the community that people shared and lived in together. Jesus was asking people if they would feel at ease and comfortable after they heard what the woman said. To impose all responsibilities on one person is an irresponsible act. Silence is also an inadequate response. I hope that we recover our civic and Christian duty as a community and take care of and save our neighbors in need of help.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목요일 · Thu

15

2022 December

하나님의 일

The Work of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일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시기에 대해, 거짓 교훈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자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 새212장(통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묵상 · 마태복음 16:21-28

통독 · 마태복음 16장

21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Reading Insight

We need to reflect and determine if we misunderstood the will of God in the stories of the birth of Jesus, the crucifixion of Jesus, and the resurrection of Jesus. This chapter talks about the time period, false teachings, Jesus Christ, and discipleship.

🎵 Hymn212 O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Meditation • Matthew 16:21-28

Reading Plan • Matthew 16

21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show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from the elders and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22 And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saying, “Far be it from you,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23 But he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hindrance to me. For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n the things of God, but on the things of man.”

24 Then Jesus told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25 For whoever would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26 For what will it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forfeits his soul? Or what shall a man give in return for his soul?

27 For the Son of Man is going to come with his angels in the glory of his Father, and then he will repay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28 Truly, I say to you, there are som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until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꾸짖으셨나요? (23절)

Why did Jesus rebuke Peter? (v. 23)

마음대로 하라는 세상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4절)

What did the Lord say to disciples who lived in a world that was telling them to do anything they wanted? (v. 2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 강명석(MA)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태(M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지구를 닮은 구슬

The Marble that Looks Like the Earth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돈을 차지하기 위해 시작한 잔인한 게임이지만 그저 잔인하게 다가오기보다는 묘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참가자 1번은 어쩌면 인생에서 더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라기 보다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자 게임에 뛰어 들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인상 깊게 본 게임은 바로 ‘구슬치기’였습니다.

구슬은 언뜻 지구를 닮았습니다. 그 지구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구슬을 많이 갖기도 하고 적게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구슬을 똑같이 나눠 가지고 살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구슬을 나눌 때 게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구라는 구슬은 하나뿐이니 다행입니다. 서로 차지하려 싸우기 보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가장 소중한 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라는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The series “Squid Games” was a big hit last year. It began as a brutal game to win big money, but rather than simple brutality, I thought it eloquently described the subtle life pattern of the contemporary world. The oldest among the participants called #1 may not have anything to gain in life but he may have participated in the game to assure himself that he was still alive. The most impressive game in the movie was the “marble game.”

At a glance, a marble reminds us of the earth. Some people on earth possess a larger amount and others a small amount. At no time in human history was there a time of fairness and justice when all people had an equal amount of marbles. However, when I share what is in my possession the game can continue. It is fortunate that the earth itself is one marble. We tend to unite our minds to keep the earth safe rather than fight to take sole possession because there is only one earth. Jesus who is coming to save the whole world is the Son of God who created the whole universe. We want to understand what the most precious being is doing. I hope we come to believe that to sacrifice oneself is the only way to discover the identity of oneself and the way of life for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금요일 · Fri

16

2022 December

믿음으로

Through Fait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믿음의 나약함, 죽으심과 부활, 성도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묵상·마태복음 17:14-23

통독·마태복음 17장

14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하고 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 하더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오니라

19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 (없음)

22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Reading Insight

Today's scripture shows that Jesus is the Son of the living God. It focuses on the event at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and deals with the weakness of faith (disciples), the death and resurrection (Jesus Christ), and the life of believers.

🎵 Hymn545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Meditation • Matthew 17:14-23

Reading Plan • Matthew 17

14 And when they came to the crowd, a man came up to him and, kneeling before him,

15 said, “Lord, have mercy on my son, for he is an epileptic and he suffers terribly. For often he falls into the fire, and often into the water.

16 And I brought him to your disciples, and they could not heal him.”

17 And Jesus answered, “O faithless and twisted generation, how long am I to be with you? How long am I to bear with you? Bring him here to me.”

18 And Jesus rebuked the demon, and it came out of him, and the boy was healed instantly.

19 Then the disciples came to Jesus privately and said, “Why could we not cast it out?”

20 He said to them, “Because of your little faith. For truly, I say to you, if you have faith like a grain of mustard seed, you will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and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22 As they were gathering in Galilee, Jesus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about to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men,

23 and they will kill him, and he will be raised on the third day.” And they were greatly distress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제자들은 귀신을 물리칠 권세를 받고도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20절)

Why couldn't the disciples cast out demons even though they were given authority to? (v. 20)

작은 믿음에 관해 네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6:30, 8:26, 14:31, 16:8)

Four times Jesus said the same thing about having little faith. What did he say? (Matt 6:30; 8:26; 14:31; 16: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늘사랑연합감리교회, 박종희(MD)
베다니한인교회, 박대성(MD)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산을 옮길 수 있을까?

Can We Move the Mountain?

오늘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강하게 남아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기도를 어떻게 제자들도 못했는데 내가 할 수 있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과장해서 표현하신 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무리해서 산을 옮기려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이미지로 겨자씨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창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되면 평생 삼질이라도 하면 언젠가 옮겨지지 않을까요? 믿음의 창문을 통해 보지도 않고 조금씩이라도 삼질하려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는 절대로 산을 옮길 수도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더 뚜렷하게 보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Today's message reiterates that we can move mountains with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Can you really move mountains? Probably, most people wouldn't even try. Some would say, "How can I pray to heal the sick when even the disciples weren't able to do it?" And there may be those who earnestly tell us not to try moving mountains because Jesus' parables were exaggerated.

In Matthew 13:31, he already used mustard seeds in the image of the kingdom of God. Faith is like a window through which we can see the great and wonderful landscape of God. May we have faith to see the power to move mountains. If not, then through our shoveling for the rest of our lives, won't we eventually move mountains one day? In the attitude of life in which we do not look through the window of faith and do not even attempt to shovel a little, we will never be able to move mountains and to see the vast work of God moving mountains.

Through praying and praying and praying again, I hope that I will see more clearly the glory of Jesus and the creation of God. I hope today you will pray without turning away from seeing someone hurting and struggl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토요일 · Sat

17

2022 December

용서

Forgivenes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위대함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하십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용서를 배우기 원합니다.

새282장(통339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독상·마태복음 18:21-35

통독·마태복음 18장

-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 26 그 종이 없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여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 29 그 동료가 없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 두거늘
-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로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Reading Insight

Greatness comes from humility. Jesus says that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is a little child. He says that He is angry with those who cause a child to stumble. I want to learn forgiveness from the image of Jesus who came to be the lowest in the lowest place.

 Hymn282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Meditation • Matthew 18:21-35

Reading Plan • Matthew 18

21 Then Peter came up and said to him, “Lord, how often will my brother sin against me, and I forgive him? As many as seven times?”

22 Jesus said to him, “I do not say to you seven times, but seventy times seven.

23 “Therefore the kingdom of heaven may be compared to a king who wished to settle accounts with his servants.

24 When he began to settle, one was brought to him who owed him ten thousand talents.

25 And since he could not pay, his master ordered him to be sold, with his wife and children and all that he had, and payment to be made.

26 So the servant fell on his knees, imploring him, ‘Have patience with me, and I will pay you everything.’

27 And out of pity for him, the master of that servant released him and forgave him the debt.

28 But when that same servant went out, he found one of his fellow servants who owed him a hundred denarii, and seizing him, he began to choke him, saying, ‘Pay what you owe.’

29 So his fellow servant fell down and pleaded with him, ‘Have patience with me, and I will pay you.’

30 He refused and went and put him in prison until he should pay the debt.

31 When his fellow servants saw what had taken place, they were greatly distressed, and they went and reported to their master all that had taken place.

32 Then his master summoned him and said to him, ‘You wicked servant! I forgave you all that debt because you pleaded with me.

33 And should not you have had mercy on your fellow servant, as I had mercy on you?’

34 And in anger his master delivered him to the jailers, until he should pay all his debt.

35 So also my heavenly Father will do to every one of you, if you do not forgive your brother from your hear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나요? (22절)

What was Jesus’ answer to Peter’s question of how many times he should forgive someone if they sin against him? (v. 22)

예수님께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면 사백구십 번을 용서하라는 것일까요?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35절)

Does Jesus mean to forgive four hundred ninety (70x7) times? What is His intent? (v. 3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령의 불꽃 교회, 유재유(MD)
에덴연합감리교회, 신요섭(MD)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용서의 다리 Bridge of Forgiveness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통과해야 할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다.”(조지 허버트 George Herbert)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용서하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영똥하게 다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의 말대로 용서는 내가 통과해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신비해서 미움과 증오로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릴 놓아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죽을죄를 지은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다리에서 용서받은 우리는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He who cannot forgive breaks the bridge over which he himself must pass” (George Herbert).

Forgiving someone is not an easy task. Forgiving is not a simple task. Some people still have their hearts full of unforgiveness when they are told to forgive. Or some, if they were told to forgive, would resolve to forgive anybody other than the person who wronged them.

As George Herbert said, if I think forgiveness is a bridge that I have to go through, it's not just a word to go over. If I don't forgive my brother, it doesn't stop there. The heart is mysterious and begins to fill up with hatred. It won't be forgotten.

But the one who made that bridge is none other than Jesus who we are waiting for. Jesus forgave us first. He forgave me for my mistakes, my unintentional harm to others, and even the sin deserving death. From that bridge of forgiveness, we have no reason not to forgive another brother.

“Be kind to one another, have compassion, and forgive one another, even as God forgives you in Christ” (Ephesians 4:32).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제 목
T i t l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Title]

성경 본문
S c r i p t u r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Scripture]

주요 내용
O u t l i n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 o d ' s V o i c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저무는 이 한 해에도

이해인 수녀

노을빛으로 저물어 가는 이 한 해에도
제가 아직 살아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들녘의 벚단처럼 엮디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이 태양이 떠오르듯
오늘은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제 마음의 하늘에 환희 떠오르시는 주님
12월만 남아 있는 한장의 달력에서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시간의 소리들은 쓸쓸하면서도
그립고 애뜻한 여운을 남깁니다.

아쉬움과 후회의 눈물 속에
초조하고 불안하게 서성이기보다는
소중한 옛 친구를 대하듯
담담하고 평화로운 미소로
떠나는 한 해와 악수하고 싶습니다.

색동설빔처럼 곱고 화려했던
새해 첫날의 다짐과 결심들이
많은 부분 퇴색해 버렸음을 인정하며
부끄러운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청정한 삶을 지향하는 구도자이면서도
제 마음을 갈고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허영과 교만과 욕심의 때가 낀
제 마음의 창문은 게을리 닦으면서
다른 이의 창문이 더럽다고 비난하며
가까이 가길 꺼려한 위선자였습니다.

처음에 지녔던 진리에 대한 갈망과
사랑에 대한 열망은
기도의 밑거름이 부족해
타오르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침묵의 어둠 속에서
빛의 언어를 끌어내시는 생명의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이 선물로 주신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밝고 부드러운 생명의 말보다는
칙칙하고 거친 죽음의 말을
더 많이 건네고도
제때에 용서를 청하기보다
변명하는 일에 더욱 바빴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 마다, 주님
제 안에 고요히 머무시어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남에 관한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참된 사랑만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당신의 삶 자체로 보여 주신 주님
제 일상의 강기슭에
눈만 뜨면 조약돌처럼 널려 있는
사랑과 봉사의 기회들을 지나쳐 간
저의 나태함과 무관심을 용서하십시오.

절절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암울한 시대” 탓을 남에게만 돌리고
자신은 의인인 양 착각하는
저의 오만함을 용서 하십시오.
전적으로 투신하는 행동적인 사랑보다

앞뒤로 재어보는 관념적인 사랑에 빠져
상처받는 모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극히 선택적이며
편협한 응졸함을 버리지 못한 채로
보편적인 인류애를
잘도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 다 나열하지 못한
저의 숨은 죄와 잘못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과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 작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제 작은 그릇엔 다 담을 수 없는
무한대이며 무한량의 주님
한 해 동안 걸어온 순례의 길 위에서
동행자가 되어준 제 이웃들을 기억하며
사람의 고마움과 삶의 아름다움을
처음인 듯 새롭게 하는
소나무 빛 송년이 되게 하소서.

저무는 이 한 해에도
솔잎처럼 푸르고 향기로운 희망의 노래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
희망의 새해로 이어지게 하소서.

월요일 • Mon

19

2022 December

모든 것의 주인

The Master of Everyth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19장에는 이혼과 간음, 부자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문제에서 도망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새438장(통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룩상·마태복음 19:16-30

통독·마태복음 19장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Reading Insight

Chapter 19 tells the story of divorce, adultery, and the rich man and the kingdom of God. Jesus is the Lord of the family and Jesus is the Lord of all things. Before you run away from any problem, please ask Jesus for help.

🎵 Hymn 438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Meditation • Matthew 19:16–30

Reading Plan • Matthew 19

- 16** And behold, a man came up to him, saying, “Teacher, what good deed must I do to have eternal life?”
- 17** And he said to him, “Why do you ask me about what is good? There is only one who is good. If you would enter life, keep the commandments.”
- 18** He said to him, “Which ones?” And Jesus said,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 19**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and,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 20** The young man said to him, “All these I have kept. What do I still lack?”
- 21** Jesus said to him, “If you would be perfect, go, sell what you posses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follow me.”
- 22** When the young man heard this he went away sorrowful, for he had great possessions.
- 23** And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ruly, I say to you, only with difficulty will a rich person enter the kingdom of heaven.
- 24** Again I tell you,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perso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 25**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were greatly astonished, saying, “Who then can be saved?”
- 26** But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 27** Then Peter said in reply, “See, we hav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you. What then will we have?”
- 28** Jesus said to them, “Truly, I say to you, in the new world, when the Son of Man will sit on his glorious throne, you who have followed me will also sit on twelve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 29**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children or lands, for my name’s sake, will receive a hundredfold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 30**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the last firs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한 청년이 근심하며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22절)

Why was a young man who honored his parents and loved his neighbor still worried? (vv. 21–22)

제자들은 왜 몹시 놀랐나요? (24절)

Why were the disciples amazed? (v. 2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워싱턴감리교회, 이승우(MD)
하늘비전교회, 장재웅(MD)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나의 힘 vs 주의 능력

My Power vs. the Power of Lord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란 질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를 급히 몰아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혹시 힘이 쭉 빠지는 경험을 하십니까? 아니면 진정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부자라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 가는 하나님 나라” 클래스를 하던 중에 부자는 하늘나라에 왜 못 갔을까를 나누던 중 궁금했습니다. 단지 나사로는 가난해서 하늘나라 갔고 부자는 부자라서 못 갔다면 무척 억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땅 부자인데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받은 복을 누리며 나누는 책임을 다하는 부자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는 부자라면, 주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과 나누는 정직한 삶을 사는 부자라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젊은이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26절을 메시지성경 버전으로 보면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오늘도 나의 힘을 믿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갈지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Do you know how difficult it is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ar of a needle than it is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ere you ever discouraged after hearing these words? If so, does that mean you think you're rich?

Not everyone who is rich is the same kind of rich. During the class “Kingdom of God Together” at church, I wondered why the rich man couldn't go to heaven. Was it only because Lazarus is poor that he went to heaven, and if the rich man did not go because he was rich wouldn't he be very resentful? One says: “Abraham was also rich on earth and went to heaven.” Yes, that's right. God gives us blessings. If you are a rich man who fulfills the responsibility of enjoying and sharing the blessings you receive, if you are a rich man who obeys God's Word and is able to leave that behind if He asks you to, if you are a rich man who lives an honest life of caring for and sharing with the poor around you, then you will certainly be different from the young man in today's scripture.

The Message Bible version of verse 26 says, “If you think you can do it with your own strength, you have no hope. But as long as you believe that God can do it, you can do it.” Today, we will have to choose whether to believe in our strength or rely on the power of God to liv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화요일 · Tue

20

2022 December

포도원 고용주

Vineyard Employe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20장은 위대한 반전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당연히 더 일한 사람이 많이 받을 거란 생각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같은 일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 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마태복음 20:1-16

통독·마태복음 20장

- 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 2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 3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 5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 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서 있느냐
- 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
- 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Reading Insight

Chapter 20 begins with a story of great reversal. Certainly, there is a reversal of the idea that those who have worked more will receive more because here they all received the same wage. The second story also says that whoever wants to be great must be a servant. May you discover the heart of Jesus, who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Hymn310 |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Meditation • Matthew 20:1-16

Reading Plan • Matthew 20

- 1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aster of a house who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to hire laborers for his vineyard.
- 2 After agreeing with the laborers for a denarius a day, he sent them into his vineyard.
- 3 And going out about the third hour he saw others standing idle in the marketplace,
- 4 and to them he said, ‘You go into the vineyard too, and whatever is right I will give you.’
- 5 So they went. Going out again about the sixth hour and the ninth hour, he did the same.
- 6 And about the eleventh hour he went out and found others standing. And he said to them, ‘Why do you stand here idle all day?’
- 7 They said to him, ‘Because no one has hired us.’ He said to them, ‘You go into the vineyard too.’
- 8 And when evening came,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to his foreman, ‘Call the laborers and pay them their wages, beginning with the last, up to the first.’
- 9 And when those hired about the eleventh hour came, each of them received a denarius.
- 10 Now when those hired first came, they thought they would receive more, but each of them also received a denarius.
- 11 And on receiving it they grumbled at the master of the house,
- 12 saying, ‘These last worked only one hour, and you have made them equal to us who have borne the burden of the day and the scorching heat.’
- 13 But he replied to one of them, ‘Friend, I am doing you no wrong. Did you not agree with me for a denarius?’
- 14 Take what belongs to you and go. I choose to give to this last worker as I give to you.
- 15 Am I not allowed to do what I choose with what belongs to me? Or do you begrudge my generosity?’
- 16 So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las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한 일꾼은 품삯을 받고 왜 불평했나요? (12절)
Why did the worker who worked from the very beginning complain when he was paid? (v. 12)

주인은 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나요? (13-15절)
Why did the owner say he did nothing wrong? (vv. 13-1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무지개연합감리교회, 조태섭(ME)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 김대기(MI)
목회자를 위한 기도

공휼의 마음 A Heart of Compassion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플라싱에 가면 일일 노동자들이 모여서 기다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와서 필요한 일꾼 수만큼 차에 태워서 갑니다.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바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저자인 케네스 베일리는 이 비유 제목을 “공휼히 여기는 고용주 비유”라 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 초점이 피고용인보다는 고용주가 보여준 놀라운 공휼과 은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탕부 하나님이라 초점을 맞춘 것과 같이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종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마음을 쓰면서 자신은 일꾼들에게 일을 주고 그늘에서 쉬어도 되지만 시간마다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직접 데려올 정도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하루 가족들을 부양할 일당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보다 기회를 받지 못해 장터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일당은커녕 기다리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도 몸도 불편할 일꾼이 마음에 더 걸렸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 ‘정의란 무엇인가’ 고민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인의 대답은 나도 당신처럼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일꾼들에게 공휼을 베풀려고 하루 종일 장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당신에게 주었고 내가 내 돈으로 다른 일꾼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왜 내가 당신에게 인색하다고 생각하오?” 정의는 자비도 포함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In Flushing, where there are a lot of immigrants, there is a place where daily workers gather and wait. Employers come and take as many workers as they need. Some of those who are left behind will leave immediately, but there are others who continue to wait there for they wish to find a job.

Kenneth Bailey, author of “Jesus with the Eyes of the Middle East,” titled the parable “The Parable of the Compassionate Employer.” I believe this is because the key focus of the story is the incredible compassion and grace shown by the employer rather than the employee. Just as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was focused on the prodigal son’s father (God), the vineyard owner was working harder than anyone else. That is, after he gives work to the laborers, he could rest in the shade, but rather he goes out to the market every hour and brings more workers himself.

The owner did not deceive but gave the complaining worker enough wages to support his family for the day. The owner was more inclined to spend the whole day in the marketplace because he was more mindful of the worker who di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and would be uncomfortable both in mind and body thinking of his waiting family than he was of the complaining worker. We may still be wondering “what is justice?” The owner’s answer was “I went back and forth from the marketplace all day to show mercy to the workers who really needed jobs and didn’t get them.” The owner says “Why are you stingy when I gave you what I promised, and I used my own money to pay the other workers?” I reevaluate the meaning of justice to also include merc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수요일 · Wed

21

2022 December

돈보다 귀한 이름

The Name
More Precious
Than Mone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곧바로 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실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왕이고 심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 새94장(통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묵상·마태복음 21:10-17

통독·마태복음 21장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고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14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6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7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Reading Insight

When Jesus entered the city of Jerusalem, he went straight to the temple. It is a bit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Jesus, the savior, cleansed the temple then cursed the fig tree. Jesus, who came to the corrupt and unfruitful world, is telling us that He is the King, the Judge, and the Son of God.

🎵 Hymn94 I'd Rather Have Jesus

Meditation • Matthew 21:10-17

Reading Plan • Matthew 21

10 And when he entered Jerusalem, the whole city was stirred up, saying, “Who is this?”

11 And the crowds said, “This is the prophet Jesus, from Nazareth of Galilee.”

12 And Jesus entered the temple and drove out all who sold and bought in the temple, and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changers and the seats of those who sold pigeons.

13 He said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make it a den of robbers.”

14 And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him in the temple, and he healed them.

15 But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saw the wonderful things that he did, and the children crying out in the temple,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y were indignant,

16 and they said to him, “Do you hear what these are saying?” And Jesus said to them, “Yes; have you never read, “‘Out of the mouth of infants and nursing babies you have prepared praise’?”

17 And leaving them, he went out of the city to Bethany and lodged ther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12절)

How do you think Jesus felt when he entered the temple in Jerusalem? (v. 12)

예수님께서 내 집은 무엇을 하는 집이라 하셨나요? (13절)

What did Jesus say that His house is for? (v. 1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김응웅(MI)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 유준식(M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Clean the Temple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나 이 세상에 태어나실
이기 예수를 기다리고 대하는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
하지 않았다.”

아마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부터 우리는 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마굿간에서 태
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골 베히레헴 마굿간까지 찾아갈 교인들이 몇이
나 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뻐할 마음은 있는지부터가 절망
적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라의 예언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성전
에 들어와 보니 난리도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바꾸고 장사를 해서 예수님
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그보다 심각하게 더러워진 성전을 보며 예수님은 하
나님의 비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채워진 성전을
보며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
씀이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을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로 나아
오는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
끗하게 하시는 마음과 비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
며 주위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사람
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도합니다.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scene where Jesus enters Je-
rusalem riding a donkey and the way we treat the baby Jesus' birth
into this world. John the Baptist puts it this way: "He came to his
people, but his people did not receive him."

We might not like the fact Jesus was born in a manger. Our Savior,
the King of all the world, Jesus, was born in a stable because there
was no place for him. How many of you are willing to go to the hum-
ble place in Bethlehem? It is devastating to wonder whether we have
hearts to celebrate the birth of the Savior or not?

As Zechariah prophesied, he humbly came in on a donkey, but the
temple was a mess. Was Jesus angry simply because of the money
exchangers and merchants? Jesus must have been angry seeing the
temple filled with filth and greed to meet the needs of the world but
not God's purpose.

Verse 14 draws our attention. According to 2 Samuel 5:8, the blind
and the lame wer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temple. But Jesus
healed the blind and the lame who came to him. He accepted those
who wer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temple. I believe this is the
heart and vision of Jesus cleansing the temple. During the season of
Advent as we wait for the Lord, I pray that people who need to meet
Jesus will come to the church, not those who are using Jesus for
their own sak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목요일 · Thu

22

2022 December

손님이 없구나

No Guest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천국에서 너희들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42절에 “누가 너희의 주인냐” 물으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우리는 삶으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새486장(통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독상·마태복음 22:1-13

통독·마태복음 22장

- 1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 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 3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 4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 5 그들이 돌아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 6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 7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 8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 9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 10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 11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 12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 13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Reading Insight

Jesus asked “Where is heaven among you?” and in verse 42, he asks, “Who is your lord?” It is our duty to follow this command –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 fully with our acts.

🎵 Hymn486 My Soul in Sad Exile

Meditation • Matthew 22:1–13

Reading Plan • Matthew 22

- 1 And again Jesus spoke to them in parables, saying,
- 2 “The kingdom of heaven may be compared to a king who gave a wedding feast for his son,
- 3 and sent his servants to call those who were invited to the wedding feast, but they would not come.
- 4 Again he sent other servants, saying, ‘Tell those who are invited, See, I have prepared my dinner, my oxen and my fat calves have been slaughtered, and everything is ready. Come to the wedding feast.’
- 5 But they paid no attention and went off, one to his farm, another to his business,
- 6 while the rest seized his servants, treated them shamefully, and killed them.
- 7 The king was angry, and he sent his troops and destroyed those murderers and burned their city.
- 8 Then he said to his servants, ‘The wedding feast is ready, but those invited were not worthy.
- 9 Go therefore to the main roads and invite to the wedding feast as many as you find.’
- 10 And those servants went out into the roads and gathered all whom they found, both bad and good. So the wedding hall was filled with guests.
- 11 “But when the king came in to look at the guests, he saw there a man who had no wedding garment.
- 12 And he said to him, ‘Friend, how did you get in here without a wedding garment?’ And he was speechless.
- 13 Then the king said to the attendants, ‘Bind him hand and foot and cast him into the outer darkness. In that plac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천국을 마치 무엇과 같다고 비유하나요? (2절)

What is the kingdom of heaven compared to? (v. 2)

왜 왕의 아들의 결혼 예식 초대가 초대받은 사람만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 되었나요? (3절)

Why did the invitation to the king's son's wedding ceremony expand from invitation only to anyone? (v. 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 유승찬(MN)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 윤국진(MN)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천국잔치 초대장 An Invitation to the Heavenly Banquet

결혼식에서 하객을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누구를 초대할지 그동안 살아 온 관계를 다 꼬집어 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빠진 사람은 없는지 혹시 초대하지 않아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양가 가족은 물론 먼 친척까지도 다 모이는 날이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결혼잔치 이야기인데 너무나 슬프습니다. 가장 기쁘고 좋은 날에 결혼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해도 무시하고 갑니다. 사업이 바쁘다고 가고, 초대하러 온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은 그들은 물론 그 동네를 불태워버립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면 예를 갖춥니다. 참석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갑자기 입을 옷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친구의 결혼식에 진정 축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축의금까지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결혼잔치 이야기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천국잔치 초대장을 우리 모두는 받았습시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잔치에 귀함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장을 어디 한구석에 처박아 놓고 생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천국잔치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아니라 먹고 다시 나가서 내 맘대로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안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초대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Making a wedding guest list is tremendous work; a couple will reconsider again and again how many and whom they should invite. It's also a day when families come together. They have to think about all the relatives, and they really don't want to hurt people's feelings. Today's parable is about a wedding party but the story has a sad ending. On this happiest day, the wedding feast was all prepared, but people didn't show up. They refused to come. Instead, they were off to take care of their business and, even worse, they insulted and even killed those who brought invitations to them. The king destroys and burns the town down.

There is an etiquette for wedding invitations. Not only do they RSVP for the wedding, but people shop for clothes to wear to the wedding. Last but not least, to congratulate the couple who are getting married, people prepare wedding gifts.

The story of the wedding feast sounds terrifying. The ones who didn't wear wedding clothes were cast out into a dark place. We all received invitations to the heavenly feast.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be ignorant of the prestigious feast God is preparing.

I wonder if I lived a life by setting aside the invitation. The wedding feast is full of guests. The heavenly banquet should fill our hearts with joy, gratitude, and excitement and this feast should replace our flesh worldly desire. May we put on the clothes of the Lord's righteousness and be thankful for the invitation that is with us all the tim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금요일 · Fri

23

2022 December

예수의 탄생

Birth of Jesu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구약 성경이 '아담의 계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계보를 통해 이름들이 나열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 새120장(통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묵상·마태복음 1:18-25

통독·마태복음 1장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님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Reading Insight

If the Old Testament is the “genealogy of Adam,” the New Testament is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Seeing the names listed here, we can see God fulfilling His promise made long ago by sending Jesus to this earth. This is the story of “God with us” through the birth of Jesus Christ.

🎵 Hymn120 O Little Town of Bethlehem

Meditation • Matthew 1:18–25

Reading Plan • Matthew 1

18 Now the birth of Jesus Christ[e] took place in this way. When his mother Mary had been betrothed[f]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from the Holy Spirit.

19 And her husband Joseph, being a just man and unwilling to put her to shame, resolved to divorce her quietly.

20 But as he considered these things, behol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saying, “Joseph, son of David, do not fear to take Mary as your wife, for that which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21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22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poken by the prophet:

23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24 When Joseph woke from sleep, he did as the angel of the Lord commanded him: he took his wife,

25 but knew her not until she had given birth to a son. And he called his name Jesu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처음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19절)

How did Joseph respond when he first heard of Mary’s pregnancy? (v. 19)

요셉은 꿈을 꾸 후 어떻게 그의 마음이 달라졌나요? (24절)

How did Joseph change his mind after the dream? (v. 2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 백성범(MN)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명균(MO)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요셉의 용기 Joseph's Courage

요셉은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요? 결혼예식도 하기 전,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요셉의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 믿지 않았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때론 우리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의 두려움, 상황을 극복하는 시련, 어두움의 연속에서 인내 등. 우리들에게 기쁨은 때론 이러한 시험을 동반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첫 말씀을 읽자마자 우리는 매년 읽으니 무뎠지만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말도 안 된다 하며 웃고 넘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시대 사람들처럼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이 마리아를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갖게 한 것입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리며 찌를 때 마리아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웠는지 상상해 봅니다.

우린 이 큰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미혼의 소녀가 감당해야 할 용기를 보며 우리는 얼마나 용기 있게 성탄절을 기다리는지 돌아봅니다.

How shocked would Joseph have been? It is before the wedding and the news of Mary's pregnancy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accept if it had not been announced by an angel of God in Joseph's dream. Actually, it would not have been accepted if Joseph had not believed that God was with him.

Sometimes we need courage to experience joy. Often, joy surfaces during trials: the fear of failure, the ordeal of trials and challenges, persevering in a time of darkness, etc. Today's verse says, "Behold, a virgin will conceive and bear a son..." In terms of this verse, we 21st century readers are desensitized about this verse since we read this verse every year. But in reality, a virgin conceiving a child was impossible, laughable, and nonsensical.

Unlike the 21st century believers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s our Savior, how was it possible for Mary to have such courageous faith? God's Word that "nothing is impossible" gave her courage, not fear. Imagine how astonished and moved Mary must have been when the child moved and kicked in her womb.

What sacrifices have we made to experience this great joy? Looking at the courage that an unmarried teenage girl had to bear, let's reflect on how courageously we can wait for Christma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토요일 · Sat

24

2022 December

동방박사

The Magi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의 탄생에 창조세계(별)도 반응하고 동방박사들(이방인)도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반응은 끔찍합니다. 두 살 이하의 사내아 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용감하게 계속 순종하며 말씀을 성취합니다.

🎵 새114장(통114장) 그 어린 주 예수

묵상·마태복음 2:1-12

통독·마태복음 2장

-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 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Reading Insight

Creation (stars) reacted to the birth of Jesus, and so did the wise men (gentiles). But Herod's reaction was horrific. He ordered all boys under the age of two to be killed. In the midst of it, Joseph courageously obeys and continues to fulfill God's plan.

🎵 Hymn114 Away in a Manger

Meditation • Matthew 2:1-12

Reading Plan • Matthew 2

- 1 Now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of Judea in the days of Herod the king, behold, wise men[a] from the east came to Jerusalem,
- 2 saying,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when it rose[b]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 3 When Herod the king heard this, he was troubl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 4 and assembling all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of the people, he inquired of them where the Christ was to be born.
- 5 They told him, "In Bethlehem of Judea, for so it is written by the prophet:
- 6 "And you, O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from you shall come a ruler who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 7 Then Herod summoned the wise men secretly and ascertained from them what time the star had appeared.
- 8 And he sent them to Bethlehem, saying, "Go and search diligently for the child, and when you have found him, bring me word, that I too may come and worship him."
- 9 After listening to the king, they went on their way. And behold, the star that they had seen when it rose went before them until it came to rest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 10 When they saw the star,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 11 And going in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Mary his mother, and they fell down and worshiped him. Then, opening their treasures, they offered him gifts, gold and frankincense and myrrh.
- 12 And being warned in a dream not to return to Herod, they departed to their own country by another wa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나요? (2절)

How did the wise men know about the birth of Jesus? (v. 2)

동방박사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준비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11절)
The Magi didn't come empty-handed. What were their gifts? (v. 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 서준석(NC)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 엄성일(NC)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이미 받은 선물 The Gift Already Received

하늘의 별이 구주 나심을 축하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창조 세계의 반응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반응합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어찌면 영원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매해 찾아옵니다.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렇게 매해 예배하는 일, 반복되는 일이 어찌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기뻐하고 삶 속에 우리들의 성실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어도 각자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성실하게 구하고 찾는 아들에게 오늘 아기 예수는 찾아가실 것입니다.

15년 전 뉴저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East Rutherford를 시작으로 Palisades Park, East Brunswick, Scotch Plains로, 이사도 3년 동안 4번이나 했습니다. 유학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밤낮으로 일했던 시기였지만 뉴저지에서 보낸 시간은 첫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참 따뜻하고 행복한 시절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100일 된 아이를 안고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 날에도 아이를 안고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았습시다.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과 관심은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나누기 보다 자기가 받을 선물에 온통 들떠 있습니다. 본인 생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올해 성탄절은 내가 받을 선물보다 주님께 드릴 선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The stars of heaven celebrated the birth of the Savior.

When the Magi saw the brightly twinkling reaction of the sky, they responded. It was to worship the baby Jesus. They presented their gifts to the hero of today, and the eternal hero, Jesus.

Christmas comes every year. It came again this year. Perhaps the annual Christmas service and the repetition of liturgy are most precious. We rejoice in the Savior who has come to this earth and we find our full devotion and dedication given to Jesus. Even if we didn't prepare an extravagant gift, the baby Jesus will come today to those who sincerely worship and seek him continuously in their daily lives.

Fifteen years ago, we began our honeymoon in New Jersey. We moved from East Rutherford to Palisades Park, East Brunswick, and Scotch Plains - 4 times in 3 years. It was a time that I came to study in the U.S., had nothing, and had to work day and night. But the time I spent in New Jersey is remembered as a warm and happy time as we were gifted with our first child. Even on a day when we had to move quickly with a 100-day-old baby, I remember my happy smiles when I looked at my baby in my arms. I felt on top of the world.

We all have received too many gifts. However, people are still greedy and very self-centered. Rather than sharing with neighbors, we are more focused on receiving our own gifts. Christmas isn't our birthday. Like the Magi, this Christmas, may we focus on the gifts we will bring to the Lord rather than the gifts we will receiv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제 목
T i t l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Title]

성경 본문
S c r i p t u r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Scripture]

주요 내용
O u t l i n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 o d ' s V o i c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감사로 한 해를 보내며

이흥빈 목사(대흥교회)

언제나 한 해를 보내는 감회는 늘 아쉬움과 함께 감사의 심정입니다.

감사와 회한, 생각하면 미소 피어지는 일들과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 눈물과 웃음, 분노와 용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시간 속에서 빛이 바래면 결국은 한 가지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모두가 감사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느꼈던 실망과 분노 그리고 섭섭함과 안타까움도, 시간 지나 보니 결국은 멀리 바라보이는 삶의 흔적 속에 연결 이루어지는 한 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또 어떤 사실과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을수록 감사가 넘치는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애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들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얼굴 들고 또 허리 곧게 세우고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늘 부족을 느낄수록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 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마음에 감격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으며, 감사할 때 우리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니 나눌 수 있고, 감사하니 섬기고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성숙해갈수록 부끄러운 생각은,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었던들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

서해주고 이해해 주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힘을 주었기에 우리 현재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부끄러워지고, 감사와 숨고 싶은 우리의 누추함이 느껴질 뿐입니다.

저물어 가는 한 해의 끝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삶의 앞날에 대한 기대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기쁘다 마음먹으면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도 있고, 슬프다 마음먹으면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삶의 비애 속에 우리 삶을 마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다 잊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해를 마감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 허물과 미숙을 보시면서도, 허물을 애정으로 미숙을 순수로 보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 Mon

26

2022 December

중요한 원리

The Important Principl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즉, 외식하는 사람들, 경건치 아니하고 위선적인 사람들, 가식적인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그들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묵상·마태복음 23:29-39

통독·마태복음 23장

29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도

32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한상신 (NH)
가득한교회, 이강(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Others First!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모여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는 이 땅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뜻과 목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어셈블리교회는 107년 동안 5명의 담임목사가 목회를 이어간 교회로 190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아주사부흥운동의 시작과 깊은 연관이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세 명의 이탈리아 여인은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이웃들을 초대해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이 발전되어 "Italian Christian Assembly"라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1969년 돈 피케렐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이어가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니다. 이탈리아인이 아니어도 예배에 참석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이탈리안'이란 단어를 버스에 쓰여진 교회 이름에서 지웠다고 합니다. 이후 교회의 공식 이름이 "크리스찬 어셈블리"가 되었고 이탈리아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안 이전에 크리스찬임을 아는 교회,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 의 자녀임을 주님의 몸 된 교회임을 먼저 기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 평화, 소망이 온 땅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Church should be a place where people invite others and meet Jesus together. If the church focuses on the congregants who are already here, then it loses the primary purpose of its existence. Our prayers need to ask for the will and purpose of Jesus, who incarnated for us, to be accomplished through our church.

Christian Assembly Church has a unique story of having only 5 senior pastors over 107 years. This church has a deep connection with the story of how the revival movement in Azusa, California started in 1906. The three Italian women who attended a Christian revival were deeply moved and started inviting others to worship together. This gathering grew into the "Italian Christian Assembly." In 1969, senior pastor Don Pickerel was leading that church and received a phone call. The caller asked if they could attend worship even though they were not Italians. The next day, the congregation erased "Italian" from the church bus. Afterward, their official name became "Christian Assembly" and it became a Christian community of diversity to include everyone, Italians and non-Italians. Likewise, I pray that all of us would follow this movement in which they realized that they were Christians first before identifying themselves as Italian. We are all God's children, one body of Jesus Christ. I pray that the love, joy, peace, and hope of Jesus Christ who incarnated for human beings fills the whole ear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화요일 · Tue

27

2022 December

어둠을 비추는 빛

Light Shines
upon Darknes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세상 뉴스에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오늘도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 새428장(통48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묵상·마태복음 24:21-31

풍독·마태복음 24장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3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갈보리연합감리교회, 왕태건(NJ)
그레이스-베델연합감리교회, 장학범(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가로등 Street Light

이탈리아 미래주의 화가 자코모 발라의 작품 “Street Light(1909)”를 봅니다. 딸의 이름을 “Light”라 지었을 정도로 새로운 기계문명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가로등 정도를 가지고 “와, 놀랍대! 와, 새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09년 길을 비추던 가로등은 오늘 밤에도 홀로 외로이 당연하다는 듯 자기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작품에서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과 달을 함께 그렸습니다. 가로등이 생기기 전에도 밤을 비추는 달, 그 달이 가로등을 비추고 있습니다.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만난 이 그림은 빛을 동경하는 나를, 아름답고 화려한 미래를 비추는듯 합니다. 집에 오는 길, 도시 곳곳에서 길을 비추는 가로등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볼 수 있는 것은 가로등에서 나오는 빛 때문일까요? 가로등을 비추는 빛이 있어서 일까요? 자코모 발라의 작품 “가로등”을 빛나게 볼 수 있게 한 것은 미술관 조명이었듯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유, 내 삶의 이유,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Street Light” (1909) is a painting by Italian Futurist artist Giacomo Balla. He was obsessed with new technology so much that he even named his own daughter, “Light.” As people who live in 2022, we are not impressed by a streetlight so don’t say, “wow, that’s amazing” or “wow, I’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before.” However, the same street light that shined light upon the dark night in 1909 is still shining light today.

Balla painted the moon with the street light as a pair of shining lights. Before the existence of the streetlight in 1909, the moon was there to shine light on the street as well as the streetlight. I saw this art in the Museum of Modern Art. This particular painting seemed to shine light on me, representing a gorgeous and bright future. On the way home, I saw different street lights on various corners. They looked new and different than before. How do we see the streetlight? Is it because of light from it or is there light on the streetlight? I was able to see Balla’s artwork by the light of the Museum of Modern Art. Just like it, we are able to see the real beauty in our lives, the true reason of our lives, and the reasons for waiting because we can approach Jesus, who came as the light of this worl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수요일 · Wed

28

2022 December

준비하라

Be Prepare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준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시면 구분된다고 하십니다. 다른 것은 서로 나누고 빌려 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비해서 각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합당한 준비를 할 때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 새175장(통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묵상·마태복음 25:1-13

통독·마태복음 25장

- 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 2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 갔더니
-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 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 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 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 10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 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 12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남부누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박태열(NJ)
뉴그레이크교회, 전영철(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Be Prepared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을 때 준비되지 못한 것에 예수님은 실망하신 것입니다. 정작 그 나라가 임할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이야기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목자들, 니고데모와 제자들, 안나와 시므온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왕,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저는 ‘함께’,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한동안 “우리는 가족입니다”를 많이 외치기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여기서 “함께”는 헬라어 “프로스”인데 그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모습,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움직이며 대화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움직임을 다시 힘차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교제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등불을 성실하게 계속 밝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혹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서로를 형, 누나, 오빠, 언니라 부르며 때론 어머니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하늘나라 공동체로 준비될 것입니다.

Jesus will be disappointed if we are not prepared when the kingdom of God comes upon us. It is easy and common for many people to not be prepared when the kingdom comes like a thief in the night. There are numerous stories in the bible which distinguish those who are prepared for the kingdom of God from those who are not. The examples of those who were prepared are shepherds, Nicodemus, the disciples, and Anna and Simeon. On the other hand, King Herod and the Pharisees were not prepared.

Now we have to start again. We have to start a community of Koinonia. I like the words “together,” “with,” and “we.” During a certain period of my ministry, I shouted “We are all family” a lot.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John 1:1). “With” in this verse is “Pros” in Greek. Pros is the picture of two parties moving toward each other. It is not a static status. It is a word of movement, reciprocal communication, fellowship, coming, and going. Let us start the movement of love towards each other in our faith community.

True fellowship of faith happens in a community of people who wait for the arrival of Jesus Christ and shine their lights sincerely and continually. If you find any sister or brother who has not prepared themselves for the arrival of the kingdom of God, you are called to invite them to prepare for the kingdom of God together. If we call each other as brother, sister, mom, or dad, then we can be the community seeking the kingdom of God through our genuine Koinonia.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목요일 · Thu

29

2022 December

내게 주신 기회

God-Given
Opportunit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지에 따라 엄청난 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게 주신 삶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깨어 기도합니다.

🎵 새50장(통기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묵상 · 마태복음 26:1-13

풍독 · 마태복음 26장

-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 3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청에 모여
- 4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 5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 6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 8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 9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 10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Depending on what we seek and love in this life, the consequences may be very different. Even though we are with Jesus Christ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our lives may be totally different based on how I use God given opportunities. May we stay awake and keep praying, “Not my will, but Thy will be done, Lord.”

🎵 Hymn50 All to Jesus I Surrender

Meditation • Matthew 26:1-13

Reading Plan • Matthew 26

- 1 When Jesus had finished all these sayings, he said to his disciples,
- 2 “You know that after two days the Passover is coming, and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up to be crucified.”
- 3 T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gathered in the palace of the high priest, whose name was Caiaphas,
- 4 and plotted together in order to arrest Jesus by stealth and kill him.
- 5 But they said, “Not during the feast, lest there be an uproar among the people.”
- 6 Now when Jesus was at Bethany in the house of Simon the leper,
- 7 a woman came up to him with an alabaster flask of very expensive ointment, and she poured it on his head as he reclined at table.
- 8 And when the disciples saw it, they were indignant, saying, “Why this waste?”
- 9 For this could have been sold for a large sum and given to the poor.”
- 10 But Jesus, aware of this, said to them, “Why do you trouble the woman? For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 11 For you always have the poor with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 12 In pouring this ointment on my body, she has done it to prepare me for burial.
- 13 Truly, I say to you, wherever this gospel is proclaimed in the whol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예수님은 그 행동에 대해 뭐라 말씀하셨나요? (7, 10절)

How did the woman in our scripture use the given opportunity to pour the expensive perfume upon Jesus' head? How did Jesus respond to her action? (vv. 7, 10)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나요? (12절)

Why did she pour the perfume on Jesus' head? (v. 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저지연합교회, 고희승(NJ)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애(NJ)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아름다운 선물 Beautiful Gift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를 마주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롯 유다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로 삼았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없앨 기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하고 향기로운 옥합을 깬 기회로 삼고 예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해 못 하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김기석 목사님(청파교회)은 “자기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때 자기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또한 내 존재가 다른 이에게 선물이 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향유 옥합을 깨어 드린 여인의 선물은 예수님께는 물론 온 세상에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는 선물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일, 헌신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손에 닿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We encounter many opportunities everyday. In today's scripture, Judas Iscariot took the opportunity to sell Jesus for 30 pieces of silver. The Jewish ruling committee also looked for opportunities to get rid of Jesus. However, there was a woman who broke open her most valuable and precious perfume jar and took this as the opportunity to encounter Jesus and fully dedicate herself to Jesus. Jesus' disciples could not understand the reasons for this woman's action which he complimented as a beautiful thing. Rev. Ki-Suk Kim said, "If you want to be a meaningful being to others, try to be a gift for someone else. The church needs to be a place where everyone is invited to become a gift for other people."

It is a very beautiful thing if what I have and who I am becomes a gift for someone else. Today's story of the special gift in which the woman offered her perfume for Jesus became gospel which has spread wherever Jesus' story is shared. It became a very memorable gift for all believers. Let us remember that our devotion to Jesus, our sacrificial giving to God always becomes beautiful things that go beyond our imagination. Even though what we have might be small and look insignificant, it can be used precisely for sharing the gospel if Jesus touches and blesses my gift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금요일 · Fri

30

2022 December

아버지의 뜻대로

According to Father's Wil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복수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잔을 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새425장(통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룩상·마태복음 27:15-31

통독·마태복음 27장

15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16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알더라

19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20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2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옥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6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27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8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29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Reading Insight

From the Passion story, we learn how to respond to unfair and unjust incidents. Jesus obeyed the Word and the will of God to the end. Jesus did not seek revenge against those who ridiculed him but drank the cup of the suffering. Jesus loved us even to the point of his death on the cross.

🎵 Hymn 425 Have Thine Own Way, Lord

Meditation • Matthew 27:15-31

Reading Plan • Matthew 27

15 Now at the feast the governor was accustomed to release for the crowd any one prisoner whom they wanted.

16 And they had then a notorious prisoner called Barabbas.

17 So when they had gathered, Pilate said to them, “Whom do you want me to release for you: Barabbas, or Jesus who is called Christ?”

18 For he knew that it was out of envy that they had delivered him up.

19 Besides, while he was sitting on the judgment seat, his wife sent word to him,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righteous man, for I have suffered much because of him today in a dream.”

20 Now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persuaded the crowd to ask for Barabbas and destroy Jesus.

21 The governor again said to them, “Which of the two do you want me to release for you?” And they said, “Barabbas.”

22 Pilate said to them, “Then what shall I do with Jesus who is called Christ?” They all said, “Let him be crucified!”

23 And he said, “Why, what evil has he done?” But they shouted all the more, “Let him be crucified!”

24 So when Pilate saw that he was gaining nothing, but rather that a riot was beginning, he took water and washed his hands before the crowd, saying, “I am innocent of this man’s blood; see to it yourselves.”

25 And all the people answered, “His blood be on us and on our children!”

26 Then he released for them Barabbas, and having scourged Jesus, delivered him to be crucified.

27 Then the soldiers of the governor took Jesus into the governor’s headquarters, and they gathered the whole battalion before him.

28 And they stripped him and put a scarlet robe on him,

29 and twisting together a crown of thorns, they put it on his head and put a reed in his right hand. And kneeling before him, they mocked him, saying, “Hail, King of the Jews!”

30 And they spit on him and took the reed and struck him on the head.

31 And when they had mocked him, they stripped him of the robe and put his own clothes on him and led him away to crucify hi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군중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조롱했나요? (29절)

What names did the crowd call Jesus as they ridiculed Him? (v. 29)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2절)

Simon of Cyrene suddenly had to carry Jesus’ cross. What do you think he was feeling as he carried the cross? (v. 3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린허스트 영광한인교회, 임희영(NJ)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 정호석(NJ)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Steadfast and Faithful Promise of God

군중들은 악명 높은 바나바가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22절). 충격의 연속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지만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사라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지만 결정적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은 것도 아니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봅니다.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을 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 자리를 지키는 믿음은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기를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신실한 모습입니다. 한자리에서의 오랜 순종의 신실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The crowd shouted to crucify Jesus instead of the notorious Barabas (v. 22). This is a shocking scene. People are fickle but this is an embarrassing scene witnessing how human beings can change in a moment.

Still there are some people who hesitated, struggled, and grieved at the suffering and death of Jesus. The wife of Pilate and Simon of Cyrene might be one of them. We who live in the 21st century are not different. We are like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who watched Jesus' ministry of miracles and power closely and who listened to his sermons more than anyone else, but disappeared at crucial moments. How can we witness the promise of God's faithfulness?

Today's text drags us into the story. We know people who looked unimpressive and did not have any leadership position in church, but faithfully held the responsibility of prayer warriors. There are people who put their priorities into worshiping God on each Sunday. Even though they did not tell us what they were doing, their prayerful and patient attitude of long hours of prayers offer us the lessons on how important it is to come before the cross and keep the space of prayer when we have a hard time staying in one place. There is nothing more. This is a great picture of sincere people of faith who keep their promises with God. May we recover the faithfulness of seasoned obedience over the long term.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토요일 · Sat

31

2022 December

부활을 살다

Living Out
the Resurrecti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빈 무덤이 주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입니다. 갈릴리, 다시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경배하며 부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 새267장(통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묵상·마태복음 28:10-20

풍독·마태복음 28장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The message of the empty grave is “Fear not! I am alive again.” Jesus commanded His disciples to go back to Galilee where they began their ministry with Jesus. They were invited to worship the risen Christ and live out the resurrection.

🎵 Hymn267 Tis the Promise of God

Meditation • Matthew 28:10–20

Reading Plan • Matthew 28

10 Then Jesu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my brothers to go to Galilee, and there they will see me.”

11 While they were going, behold, some of the guard went into the city and told the chief priests all that had taken place.

12 And when they had assembled with the elders and taken counsel, they gave a sufficient sum of money to the soldiers

13 and said, “Tell people, ‘His disciples came by night and stole him away while we were asleep.’”

14 And if this comes to the governor’s ears, we will satisfy him and keep you out of trouble.”

15 So they took the money and did as they were directed. And this story has been spread among the Jews to this day.

16 Now the eleven disciples went to Galilee, to the mountain to which Jesus had directed them.

17 And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ed him, but some doubted.

18 And Jesus came and said to them,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19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7, 10절)

Why did Jesus command the disciples to return to Galilee? (vv. 7, 10)

마태복음 시작에 요셉에게 주신 약속에 포함된 내용이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하신 약속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20절)

At the beginning of the book of Matthew, God’s promise to Joseph (Jesus’ father) is mentioned. This promise is kept at the end of the book of Matthew. What are the details of the promise? (v. 2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Church, Rise Up!

김회권 목사가님 청년 설교에서 쓰신 내용을 통해 역사 가운데 우리의 기억을 되새겨 봅니다. “초기 기독교 300년간 로마 제국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데 결정적 요소는 무엇 일까요. 초기 기독교에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종교로 성공할 가능성을 보여줄 만한 요소가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313년에 로마 황실을 압박하여 공동 황제였던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로 하여금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정리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만족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대도시로 몰려들었던 사람들, 전쟁 기간 동안에 자기 농작지가 전쟁터로 변해 버려 황폐해진 땅을 버리고 할 수 없이 도시로 밀려든 빈민들, 친구도 가족도 없이 국외 전쟁터에서 심 몇 년간 군 생활하다 돌아온 퇴역 군인들도 연금이나 주택도 받지 못하고 고아처럼 내버려졌습니다. 대도시 빈민으로 내몰렸을 때 교회가 보듬었습니다.”

“로마의 남자들이 10년 20년씩 전쟁터에 있었을 때 과부가 생기고 고아가 생기고 늙은 홀어머니가 생겼습니다. 그들을 다 누가 돌보았습니까? 교회가 돌보았습니다.”

교회가 각 사람과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맞이할 새해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Rev. Huikwon Kim wrote this in “Young Man Sermon” which invites us to reflect on Christian history. “What is the critical element of the Koinonia Christian community which was powerful enough to demolish the Roman Empire and kept their strength for the first 300 years?”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 did not have the conditions or requirements to be successful as a world religion which needs to have an organized network. However, Christians forced two Roman co-emperors, Constantine and Licinius, to acknowledge their faith in AD 313.

The historians explained that “The people were exploited by Barbarians, forced to leave their home country, and came to big cities. During wars, farmers had to leave their land and come to a big city. There were retired soldiers without family or friends who served a couple of decades and returned to a big city but did not receive any benefits. The church embraced these people when they were at their lowest moment. When Roman soldiers were at war for 10 or 20 years, there were widows, orphans, and old single mothers. Who took care of these desolate people? The church took care of them.”

The church sustained every member of society under her wings. Let us look forward to seeing miracles of faith in the New Year. Let us live today differently than yesterday. May your New Year be filled with the same faithfulness of God and your faithful response. Amen.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모리스타운한인교회, 최상훈(NJ)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백승린(NJ)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혁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혁을 위해 사용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혁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2022년 12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광야의 목소리 | 마태복음 3:1-12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협력하는 믿음의 실천 | 마태복음 9:1-8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용서의 다리 | 마태복음 18:21-35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긍휼의 마음 | 마태복음 20:1-16

광야의 목소리



새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새425장(통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광야를 지나며

01 여는 질문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 목소리(내 마음에 있는 솔직함)를 듣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02 본문 이해

마태는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외침은 당연한 듯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받는 자리에 나아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른 냉철한 심판의 목소리도 함께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12월의 첫날을 시작하셨나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때론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길ियो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이 방향을 잃은 듯한 광야 같은 삶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나 듣지 않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따르라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철저히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서 시작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03 말씀 속으로

1.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한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2.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맺으라고 한 열매는 무엇인가요? (8절)

04 삶 속으로

1.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가 있다면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2. 삶 속에서 광야에서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05 암송 구절 마태복음 3:3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06 자녀와 나눔

아이들에게 혹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서운했던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엄마아빠에게도 물어보며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협력하는 믿음의 실천



새543장(통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으로 서리라

01 여는 질문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의 도움을 받았던 일이나 내가 도움이 되었던 일이 있었다면 나눠주세요.

02 본문 이해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의 믿음에는 아픈 친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바쁘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는 마음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에는 아픈 친구를 향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나올 수 있다는 소망으로 그들은 친구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친구들의 믿음에는 행동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소망, 믿음의 실천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은 구경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구경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군중들로 둘러싸인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친구들의 열정을 구경꾼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지혜로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려가는 창의적인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친구들은 서로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필요한 하나 된 마음과 믿음의 협력인지 모릅니다. 중풍병의 현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이든 고쳐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협력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03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2절)

04 삶 속으로

가족들과 혹은 믿음의 친구들과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05 암송 구절 마태복음 9: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06 자녀와 나눔

혼자 했을 때보다 친구와 같이 할 때 더 재밌고 좋았던 게임이나 활동이 있었다면 나눠봅시다.

용서의 다리



새363장(통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새282장(통339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01 여는 질문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용서 받은 경험이 있었다면 나눠봅시다.

02 본문 이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통과해야 할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다.”(조지 허버트 George Herbert)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용서하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엉뚱하게 다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의 말대로 용서는 내가 통과해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신비해서 미움과 증오로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릴 놓아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죽을죄를 지은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다리에서 용서받은 우리는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03 말씀 속으로

1.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줘야 합니까란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나요? (22절)
2. 예수님께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면 사백구십 번을 용서하라는 것일까요?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35절)

04 삶 속으로

어떨 때 특히 상대방을 용서하기가 힘드나요?

05 암송 구절 마태복음 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06 자녀와 나눔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본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만약 직접 말로 하기 힘들다면 용서 노트를 적어봅시다.

공훈의 마음



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197장(통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로다

01 여는 질문

우리가살아가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02 본문 이해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플러싱에 가면 일일 노동자들이 모여서 기다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와서 필요한 일꾼 수만큼 차에 태워서 갑니다.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바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저자인 케네스 베일리는 이 비유 제목을 “공훈히 여기는 고용주 비유”라 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 초점이 피고용인보다는 고용주가 보여준 놀라운 공훈과 은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탕부 하나님이라 초점을 맞춘 것과 같이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마음을 쓰면서 자신은 일꾼들에게 일을 주고 그날에서 쉬어도 되지만 시간마다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직접 데려올 정도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하루 가족들을 부양할 일당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보다 기회를 받지 못해 장터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일당은커녕 기다리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도 몸도 불편할 일꾼이 마음에 더 걸렸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 ‘정의란 무엇인가?’ 고민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인의 대답은 “나도 당신처럼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일꾼들에게 공훈을 베풀려고 하루 종일 장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당신에게 주었고 내가 내 돈으로 다

른 일꾼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왜 당신이 인색하오?” 정의는 자비도 포함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03 말씀 속으로

1.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한 일꾼은 품삯을 받고 왜 불평했나요? (12절)
2. 주인은 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나요? (13-15절)

04 삶 속으로

1. 직장에서 억울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2. 여러분이 만약 고용주라면 일꾼들에게 어떻게 하루 일당을 지급했을까요?

05 압송 구절 마태복음 20: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나 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06 자녀와 나눔

길에서 마주하는 홈리스를 볼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는지 나눠봅시다. 열심히 살고 싶은데 기회가 없거나 자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Voice of the Wilderness



A Wonderful Savior Is Jesus My Lord
Have Thine Own Way, Lord
Passing Through the Wilderness

01 Opening Discussion

Do you sometimes feel that your family and friends don't hear your voice (the honesty in your heart)?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Matthew begins the story to be fulfilled in Jesus. The cry to repent that John the Baptist's "Kingdom of Heaven is near" may sound obvious. Of course, many who came to the place of baptism repented of their sins and were baptized. But we hear at the same time the voice of sober judgment who called them the children of vipers when the Pharisees and Sadducees arrived. What voice did you hear on the first day of December? Are we who have been baptized and are children of God living in a very different way from those who are called children of vipers? Sometimes it's easy to be presumptuous as we make our way out of the wilderness. We should not focus on just making our way out, but living according to Jesus, who is already the Way. Because walking with Jesus, the Way and the Truth, is essential in a wilderness-like life that seems to have lost its path. So, we must listen to the voices shouting in the wilderness.

Listen! Israel! God, who has spoken endlessly to the Israelites, has now sent Jesus and told us, who have not listened, to follow him. May this Advent, which awaits Jesus who came to this earth, be a time to thoroughly prepare

to follow Jesus once again! May it begin with hearing the voice of the Lord, even in your wilderness-like reality.

03 Into the Word

1. What did John the Baptist preach in the wilderness of Judea? (v. 2)
2. What fruit did John the Baptist tell the Pharisees, the Sadducees who came to be baptized, to bear? (v. 8)

04 Into our life

1. Whose voice have you heard the most recently? How has it affected your life?
2. When have you ever felt like you were standing in the wilderness of your life?

05 Memory Verse Matthew 3:3

He said unto him that he had spoken through the prophet Isaiah, and there was a voice of him crying out in the wilderness, saying,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and straighten the way in which he will come.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Ask your kids if they've ever been sad that their stories were not heard at school, at church, or at home. Let them know that, as a family, you should all take the time to listen to each other's voices.

Cooperative Faith in Action



Simply Trusting Every Day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I Will Stand by Faith

01 Opening Discussion

Have you received help from friends or offered help to friends? Share those stories with the group.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When Jesus saw the faith of the paralytic's friends, he healed the man.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paralytic's friends helped him to be seen by Jesus. The friends had faith in Jesus but at the same time they had deep love for their friend who was helpless.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care for those who are ill since we are constantly bombarded with life's trials and challenges.

Faithful friends hope for healing and look forward to seeing the healing of their loved ones. When they believed that Jesus could heal, the friends of the paralytic took him to Jesus Christ.

The paralytic's friends had faith in action. Their love, hope, and faith were carried out in action which led them to approach Jesus. They didn't want to be the audience just witnessing the healing of others. Nothing could stop the friends of the paralytic, not even the dense group of people surrounding Jesus. Their faith produced wisdom and they found a creative way to open the ceiling of a house and let him down to Jesus.

Lastly, his friends cooperatively worked in faith. Perhaps this cooperative action of faith is most needed during these times. When we come together with faith in Jesus, our Lord who healed paralysis will heal any problems as he sees the faith in us. I

pray that you will work together in faith in your family and your church.

03 Into the Word

What made Jesus heal the paralytic and forgive his sin?

04 Into our life

What action of faith can you provide to your family or friends to accomplish the work of God?

05 Memory Verse Matthew 9:2

And behold, some people brought to him a paralytic, lying on a bed. And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paralytic, "Take heart, my son; your sins are forgiven."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as there an activity or game that was more fun experiencing with friends instead of by yourself?

Bridge to Forgiveness



From the Depths, O Lord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Lord, Give Me Your Heart.

01 Opening Discussion

Share a story of forgiveness you received after your wrongdoing.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He who cannot forgive others, breaks the bridge over which he himself must cross." (George Herbert) Forgiving a person is not easy. Forgiveness is not an easy task. Some of you may still feel upset even hearing the word "forgive." It may trigger hurt from the past and make a person make a renewed vow, "I can forgive all people but never will forgive that jerk."

As George Herbert put it, if you think that forgiveness is a bridge you have to cross, it's not something you can ignore. If you don't forgive your brother, it doesn't stop there. The mind is a mysterious thing, and it will start to get crowded with anger and hatred.

It does not forget either. After all, the one who built the bridge is none other than our Lord Jesus. Jesus forgave us first. He forgave my mistakes, unintentional harm I've inflicted on others, and even my deadly sins. We, who have been forgiven on that bridge of forgiveness, have no reason not to forgive others.

"Be kind to one another, compassionate, forgiving one another, as God in Christ forgave you." (Eph 4:32)

03 Into the Word

1. How did Jesus answer when Peter asked, “How many times should I forgive someone who sins against me?” (v. 22)

2. Does Jesus mean to forgive seven times seventy which is four hundred ninety times? What did he actually mean? (v. 35)

04 Into our life

What makes it hard to forgive someone?

05 Memory Verse Matthew 18:35

So also my heavenly Father will do to every one of you, if you do not forgive your brother from your heart.”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Please share a time when you’ve forgiven a friend. If it is too hard to share, journal it.



Heart of mercy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God Whose Grace Overflows
What an Amazing Grace

01 Opening Discussion

Do you think the world we live in is a just society? If not, share your reasons.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f you go to Flushing, NY where many immigrants reside, there is a waiting area for daily laborers. Employers bring their cars and pick the people they need. Sometimes the people passed over leave for the day but some wait for an opportunity to be picked up by another employer.

In the book, "Jesus through Middle Eastern Eyes", the author, Kenneth Bailey, said today's scripture is "the parable of a merciful employer." Today's story shows the extreme and surprising mercy and grace of the employer rather than the side of employees. This perspective is similar to the concept of "prodigal father" instead of "prodigal son." The owner of a vineyard felt sorry for the people who were not able to find work for the entire day. The employer himself worked hard to go back to the market to hire more employees several times while offering work and shade for resting for his employees.

The employer did not lie. He just gave the same wage for each employee including those who were hired later, so all of them could take care of their family. The employer had more compassion for the people who were not picked up right away but waited at the market all day for another chance than for those whom he picked up in the morning. The employer sympathized with the ones who waited in the market, because they were probably burdened thinking of not being able to provide for their

own family. We might still wrestle with the concept “what is justice?” in this story. The response of the owner would be “I went back and forth to the market all day to show mercy to the workers who needed to work but could not find work for the day. For those who expressed that getting the same wage as the late comers,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that “I gave you the amount of wages I promised before the work. I showed my mercy to the other workers who came later. Why do you behave greedily over my money? This parable makes me think that justice includes mercy.

03 Into the Word

1. Why did those workers who started work early complain after receiving their wages? (v. 12)

2. Why did the employer (the owner of the vineyard) say that he had done nothing unfair or wrong? (vv. 13–15)

04 Into our life

1. Have you been treated unfairly in your work? How did you respond to it?

2. If you are the employer (the owner of the vineyard) of today’s parable, how would you pay all the daily workers?

05 Memory Verse Matthew 20:14

Take what belongs to you and go. I choose to give to this last worker as I give to you.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Share how you feel when you see the homeless on the street. How can we help people who want to work hard and get better lives but do not have opportunities or have a tendency to give up easily?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13076Z

Country : **South Korea**

Serving At: **United Methodist World Mission Office in Seoul, Korea**

Home Country: **South Korea, Asia and Pacific**

Kim, Hong-Duk

The Rev. Hong-Duk Kim is a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ssigned to manage the United Methodist World Mission Office in Seoul, Korea.

The World Mission Office in Seoul builds bridges with the Korean Methodist Church, the world's second-largest Methodist denomination, and oversees the use of United Methodist facilities and resources that are legacies of a rich mission history.

Rev. Kim was born in Korea and attended high school and undergraduate school there, graduating from Yonsei University with a bachelor's degree in theology in 1986. He then enrolled in the Vanderbilt University Divinity School, Nashville, Tennessee, graduating in 1991. He is affiliated with the Tennessee Annual Conference, and for five years served as a chaplain at World Vision Korea in Seoul. He was

ordained an elder in 1994. From 1996 to 1998 he was director of the Seoul Consulting Office of the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Kim became a commissioned missionary in 1999 and was assigned to work with mission finances and links with the Korean church. The World Mission Office was set up in 2010 to continue historic commitments to mission in the region.

Rev. Kim has a strong sense of calling to build positive, productive mission relations betwee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and The United Methodist Church. Methodism came to Korea in the 1880s with American missionaries. The Korean Church, now confined to South Korea, became fully autonomous in 1930, although it retained strong mission ties with groups that would eventually come together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Kim is “waiting and preparing for the time when God opens the door and allows us (Methodists)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eople in North Korea.”

Rev. Kim is married to Hea Yoon Kim. They have one son, In Kyu.

Contact info : hdkim@umcmision.org

사 권 의 기 도 24

김영봉 목사
와싱턴 사권의교회, VA

사권의 기도의 6가지 열매-
새로운 의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

바울의 유명한 선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6-17)”

그동안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새것’은 새로워진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게 새롭게 열리는 세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쓴다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다. 그 안에 속사람이 탄생하고 속사람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 때문이다. 겉사람에 이끌려 살던 과거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른 사람이다. 속사람이 자라나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그동안은 육적인 감각과 이기적인 정신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파악한다. 그 결과 전에 보지 못 하던 것들을 보고 과거에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

들이 가짜임을 깨닫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면 “보라 새로운 세상이로다!” 라는 감탄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변화는 세상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고 그에 걸맞은 참된 삶을 살려는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를 불타게 한다. 이 거룩한 열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진실을 찾아가도록 끊임없이 자극한다.

따라서 사귀의 기도는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킨다. 영적 대가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의 한계를 넘어서 있다.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한다.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지에 이른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의 의식이 기도를 통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 의식이 확장되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면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첫째, 의식이 확장되면 기도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우주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영성가들은 이 비유를 한층 넓힌다. 즉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임을 깨닫는다. 이 의식에 이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생명체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다. 영적 감각을 통해 다른 생명의 아픔을 공감하고 중보한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생명을 위해 헌신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우주적 의식’(cosmic consciousness)의 표현이다. 이 의식이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생명을 위해 노력하게 했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해지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

둘째, 사귀의 기도를 통해 깊은 영성이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 영성’에 이른다. 미국의 여성 신학자 샬리 맥페이그(Sallie Mefague)는 <초월적, 자연적 그리스도인>(Super, Natural Christian)에서 자연 영성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독교 자연 영성이란 자연에 대한 기독교적 실천을 가리킨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관계 맺고 살아가듯 자연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자연 세계에 민감해지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듯 자연을 대하는 것을 말한

다. 기독교적 자연 영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듯 가치 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연 영성이 깊어지면 인간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다른 생명과 연대감을 느끼고 그 연대감을 통해 교제한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창 1:28)이 착취가 아니라 봉사하라는 뜻을 깨닫게 된다. 자연에 해로운 모든 생활 습관을 버리고 조화로운 삶을 선택한다. 그러한 삶에서 인간은 비로소 참된 안식과 치유를 얻는다.

셋째, 사림의 기도를 통해 깊은 영성에 이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다. 처음에는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분명하게 구별되지만, 영적 교제가 깊어지면 그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둘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진다는 말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삼켜졌다는 말이다. 이 상태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결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결정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빈번하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요 14:7), 자신을 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요 14:9)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 신적 합일(神의合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깊은 기도와 영성 생활을 통해 이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전해지고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신다.

깊이 있고 밀도 있는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면 수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적 성격과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허락하신다. 어느 하나를 고집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모든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 놓고 그 깊은 영적 세계를 탐험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다.

기도의 유익을 경험하려면, 바르게 아는 것 못지않게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도 습관이 몸에 밸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 보라.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몸에 배지만 좋은 습관은 쉽게 배지 않는다. 애써 노력해야 조금씩 몸에 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사귀의 기도는 '제2의 천성'이 된다. 이럴 때 우리는 바른 기도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시작하라! 바로 이 순간부터 새로운 기도를 연습하라!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귀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귀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유성준교수의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

06

신앙과 지성사, 2022



4 그리스도의 집과 카이로스의 집(Christ House and Kairos House)

노숙자 병원인 그리스도의 집은 워싱턴 D.C.에 있다. 미국에 사는 노숙자, 그중에서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입원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도움, 중독 치료, 재활활동 등 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들을 전반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1975년 제넬(Janelle) 박사는 연합감리교회 목사인 남편 알렌과 파키스탄에 의료 선교사로 지원했는데, 그때 세이비어교회 진료소 앞에 노숙인이 폐렴으로 얼어 죽은 사건을 통해 그것이 소명이 되어 여러 단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79년부터 노숙인 치유사역인 “그리스도의 집”을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집 앞에는 삼삼오오 모일 수 있는 벤치와 그늘막이 있고 그 안에 한 청동 동상이 서 있다. 서번트리더십학교가 있는 축제 센터에서 앞에는 “가르치는 예수(Teaching Jesus)” 동상이 서 있는데 이곳 그리스도의 집 앞에는 “섬기는 예수(Serving Jesus)” 동상이 서 있다. 한쪽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발을 씻어 주시려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동상은 그리스도의 집이 어떠한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누구든지,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몸소 씻어주고 치료해주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집인 것이다.

‘노숙자 병원’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냄새가 나거나, 위생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집은 여느 병원과 다르지 않게 깔끔하고 위생적이다. 3명의 의사와 다수의 봉사자들도 5층 숙소에서 가족과 함께 상주하고 있고 세이비어교회를 설립한 고든 코스비 목사 부부도 이곳에서 살다 소천하였다. 3층에는 상담도 하고 누구나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채플이 있고, 1층 맨 끝에 있는 식당은 주일에는 주일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집은 많은 지역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사역을 돕는다. 노숙자들을 위한 목욕시설이 잘 되어 있고 바로 옆에 갈아입을 수 있는 옷가지와 생활 필수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식당에서는 365일 노숙인 환자들과 퇴원 후 재활을 위한 장소인 “카이로스의 집”에 머물며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끼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미국 사회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가 바로 알콜중독과 마

약중독인데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집은 남성 노숙자들을 위한 시설이며 34개 병상이 갖추어져 있고 최대 40일간 입원할 수 있다. 이곳에서의 치료가 마친 노숙자들은 본인의 결정에 따라 다시 거리에 나가기도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카이로스의 집”에 가서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재활훈련을 받기도 한다. 카이로스의 집에서는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으며 이곳에서 회복 프로그램, 신앙훈련,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 카이로스의 집에서 단계별로 훈련받는 이들 중 90퍼센트 이상이 전인적으로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인 카이로스의 집은 두 동의 건물인데, 각 건물마다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최대한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사역하고 있다.

재정적인 지원은 각 교회의 헌금, 푸드뱅크 지원, 재단이나 기업 그리고 노숙자들 대상의 의료지원을 포함한 정부 지원 등이 있다. 전체 예산은 그리스도의 집과 카이로스의 집을 포함해서 연 1,100만 불이라고 한다. 신체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넘어 영혼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느껴진다.

그리스도의 집에서 자원봉사자로 사역하는 이들에게는 이곳은 단순히 ‘퍼주는’ 봉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 이곳에서 노숙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피폐된 영혼들이 영적으로 채워짐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곳을 오가는 이들의 모습에는 모두가 기쁨이 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 모두의 얼굴에 기쁨과 만족, 행복이 가득하다. 세이비아교회 사역 현장을 방문하여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본 기쁨은 단순한 사역의 보람을 넘어서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큰 도전이 된다.

매 주일 그리스도의 집과 카이로스의 집을 오가는 모든 이들이 모여 드리는 주일예배가 그리스도의 집 1층 예배실에서 진행된다. 1백여 명 정도가 참석한 예배에는 세이비아교회에 속한 교인들과 노숙인 환자들이 자유롭게 그러나 정갈한 옷을 입고 함께 참석한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연합감리교회 소속의 알렌 목사님으로, 의사인 아내와 함께 1979년에 그리스도의 집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집을 섬기며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예배의 순서

는 한국에서 경험하는 예전을 갖춘 전통적인 예배와 비슷하지만 찬송가는 흑인들이 사용하는 단순하고 템포가 빠른 음악을 사용하고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한다.

예배 중 몇 가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예배 시작 부분에서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나 나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고백하는 간증 시간(Community Reflection)이었다. 죄의 고백(Invitation to Confession) 시간에는 행정부의 새로운 의료정책으로 2천만의 빈곤층이 의료보험을 잃게 되는 것은 죄라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죄를 고백했다. 마지막에는 중보기도 제목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알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하자 곳곳에서 회중들이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매년 세이비아교회를 방문하는 한국서번트리더십훈련원을 위한 기도 제목도 나왔다. 기도 제목이 나온 후 알렌 목사님은 정리하며 대표로 기도해 주는데 정말 살아있는 예배라는 감동을 받게 되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참석자들이 직접 나와서 예배 시간에 간증하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예배가 매번 특별하고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다.

세이비아교회 구성원들은 섬김 이전에 영적인 충만함을 중요하게 여겨 매일 한 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침묵기도수양관을 방문하여 주기적으로 자신을 비우고 채우는 침묵기도 영성훈련에 참여한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집과 카이로스의 집의 역동적인 사역의 현장을 방문하고 노숙자 병원에서 주일예배에 참여하며 소명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고 매일매일 사역 이전에 무엇보다 영적인 훈련(Spiritual Discipline)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

편집자주

『유성준 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아교회 이야기』를 새로 연재합니다. 이 책은 세이비아교회와 서번트 목회에 관한 연구들을 담고 있으며 세이비아교회의 실질적 사역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난관을 타개할 비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번 시리즈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성준(한국 서번트리더십훈련원장) 목사님과 신앙과지성사에 감사드립니다.



동행

Youngmee Seo Munoz_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조류독감 같은 이야기는 들어봤으나 주로 특정 지역, 나라의 이야기였고 실제로 내가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오랫동안 마비시킨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였다. 모두들 다른 바이러스처럼 잠깐 동안 유행하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건 큰 착각이었다.

2020년 3월 바이러스가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생일을 갓 지난 두 살 된 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평소 잘 아프지 않았던 딸이 열이 나면서 숨을 거칠게 쉬었다. 걱정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시기였다. 병원도 일반진료는 문을 닫은 상황이었다. 혹시 바이러스가 전염될까 봐 병원 가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 다음날 의사를 만났다. 중이염이 와서 폐렴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떠올렸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로 외출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하지 않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다. 밤낮으로 기도했다. 항생제를 먹고 딸은 괜찮아졌다. 너무나 감사했다. 폐렴은 후유증이 1년쯤 간다고 들었는데 2021년 3월 세 살이 된 딸은 하나님의 보호하에 지금까지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교회도 문을 닫아야만 했다. 모태신앙이었던 나

는 어릴 때부터 매주 주일이면 교회를 어렵히 갔었는데 그리고 가끔은 일이 있거나 피곤하면 한 번씩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이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한 번도 교회가 문을 닫아서 가지 못했던 적이 없었던 그런 편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했다.

하나님이 아셨을 것 같다. 그런 나의 마음을....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 여행을 좋아했던 우리 가족은 여행도 갈 수가 없었다. 집 밖으로 외출조차 하지 못했고 출퇴근을 멀리하고 바빴던 남편은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같이 있을 수 있으니 좋았다. 그리고 나는 제자양육반을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모든 교육을 교회에 가서 참석해야 했는데 나는 어린 딸이 있어서 참석하기 힘들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주저하지 않고 등록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말씀을 붙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은혜로웠다. 일주일에 한 번 자기 차례가 있어서 카톡으로 매주 큐티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다. 같은 말씀이나 각자 느끼는 바는 달랐다. 그리고 말씀 암송도 했다. 학창 시절 암송대회도 여러 번 했었고 수련회를 가면 식사 시간 전에 항상 말씀을 암송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언제가 나의 마지막 암송이었는지 까마득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을 되돌아보며 이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이 성경공부를 하는 것을 보며 부러웠었는데 나에게도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아 트리니티 성경공부도 등록했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한 것도 오래전이었다. 항상 그냥 보던 성경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서 배우니 새롭게 느껴졌다. 매주 말씀을 먼저 읽고 테스트하는데 재미있기 까지 했다. 언제 이런 테스트를 했던가. 그렇게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과 나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신앙생활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있는 나에게 세미나도 모두 온라인으로 하니 편하게 참석할 수 있었다. 7살 아들에게 큐티란 것은 생각도 못 했었는데 아동부 목사님의 소개로 아이들도 큐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1년 정기구독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많은 분께 코로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 그 속에서 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연단을 통해 깊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다. 나는 종이기에 그냥 모든 것에 순종하고 맡기고 따르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었는데 이제서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편. 그리고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샌디에이고에서만 살았던 우리에게 이런 팬데믹 가운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왔다. 남편이 플로리다로 부서를 옮기게 되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걱정스러웠다.

어느 날 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말씀하셨다. 그날따라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목장 식구들과 나누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암송하면 그것이 삶에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된다고 하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혼자 외우기 시작했다. 잠들기 전에도 암송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 많이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암송하지는 못했었다.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집을 사야 하는 일도 파는 일도 갈 길이 멀게 느껴졌다. 거리가 먼 거리라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 나는 또 느끼게 되었다. 나를 위해 이미 다 준비해 두셨다. 그곳에 가지 못하고 집을 사야 하는. 매물이 너무 없는데 살 사람은 많은 흔히 말해 집을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틀 만에 집을 사게 되었다. 마침 전 주인이 론이 안되어서 드롭되어 마켓에 막 나온 그것도 모든 조건이 너무 좋은 새집을 사게 되었다. 감사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집을 샀는지 주변에서 다 놀라워했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집을 판매하는 일이 또 있었다. 판매는 쉽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매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집은 아직 3년이 안된 집이었는데 총 100채 중 오직 한 채만 작년에 팔아서 판매 기록조차 거의 없어 가격을 측정하기가 어려

운 상황이었다. 걱정에 둘러싸인 채 마켓에 두려운 마음으로 내놓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바로 앞집에 우리랑 똑같은 모델의 집이 그 다음날 마켓에 나온 것이다. 이런 걸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하는 것 같았다. 모두들 두 집이 경쟁이 되어서 바이어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샐러들에겐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생각이었다. 같은 모델 매물이 없어서 가격조차 측정하기 힘들었는데 한 채가 같이 나오면서 더 경쟁이 되어서 가격은 훨씬 올라가게 되었다. 얼마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은 다른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한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감사했다.

아직 장거리 이사라는 큰일들이 남아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먼 곳에 가서 살아야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난 기대와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나의 가족을 통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앞으로 남은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팬데믹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신 분들도 너무 많고 아프신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론 힘드신 분들도 많은 이 상황에서 나의 작은 이야기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풍요롭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없어져서 너무나 평범해서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을 다시 감사함으로 채우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팬데믹과 나의 믿음

안애리_뉴년한인교회

2020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두려움, 절망, 슬픔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일 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모든 순간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더 강하게 붙드시고 지지 않게 사랑으로 돌보셨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며 지쳐가던 중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하던 교회 언니들과 큐티를 시작하였고 의지가 약한 나를 일 년 동안 이어가고 있게 하신다. 함께 한나미니스트리 단체의 비기너 영어성경암송도 시작하게 되었다. 암송을 한다는 것이 상상도 되지 않았고 자신이 없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외우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의 입술에서 말씀이 율조려짐이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다. 매일 말씀 암송을 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크고 작은 체험을 하였다.

미국이 섰다운 되고 모든 게 멈춰버리고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채워주셨고 우리 가정에 큰 평안과 기쁨을 주셨다. 암송이 힘들어지고 지쳐할 때에도,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자매님들 덕분에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나의 상황에 맞는 응답을 주셨다. 매일의 암송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왔다.

한 번은 아이들과 성경 이야기를 하는 도중 7살 딸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외웠던 성경 구절을 몇 달이 지나고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의 힘과 생명력이 큼을 느꼈고, 더욱 열심히 암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중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큐티를 하며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무언가를 붙잡고 지냈더라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냈던 일 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한 해였고,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또한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었던 나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하고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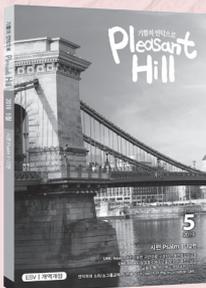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
|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 매월 \$ 35 per month |
| 20권 | 매월 \$ 70 per month |
| 30권 | 매월 \$ 105 per month |
| 50권 | 매월 \$ 175 per month |
| 100권 | 매월 \$ 350 per month |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10 \$20 \$30 \$50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 몽고메리주님의교회 (유혁재, 334-279-1935)
-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 (지홍일, 205-957-0595)
- 프렛빌한인교회 (홍성국, 334-221-9392)
- 현스빌감리교회 (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 (금재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 (이기용, 480-423-7777)
-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 (고은영,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 소망연합감리교회 (조선옥, 501-308-4127)
-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 831-333-6857)
-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 (박용삼, 714-534-6378)
-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이석부, 310-973-5106)
-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323-641-0691)
-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조승홍, 213-747-4209)
- 남가주주님의교회 (김박인, 626-965-9191)
-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 (최요셉, 818-886-1555)
- 드림교회 (정영희, 626-793-0880)
-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김학춘, 949-380-7777)
-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도민, 714-226-0300)
-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창민, 310-645-3699)
- 로스웰리즈연합감리교회 (신병국, 323-382-0691)
- 밴나이연합감리교회 (안정섭, 818-785-3256)
-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류재덕, 818-366-0089)
- 버클리세교회 (김종식, 510-526-7346)
- 베델연합감리교회 (한인희, 408-244-8710)

- 사랑나무교회 (이상호, 818-346-1617)
-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 (남기성, 805-922-1004)
-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권혁인, 408-295-4161)
-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 (송계영, 415-759-1005)
-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정상용, 858-279-9191)
- 시온연합감리교회 (오경환, 310-834-5504)
- 어바인드림교회 (949-786-8354)
- 언약교회 (이상호, 909-622-8815)
- 영화연합감리교회 (강현철, 213-413-4154)
- 열린교회 (김규현, 510-652-4155)
- 예수사랑교회 (이강원, 408-746-9553)
- 오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섭, 510-451-9076)
-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805-488-0100)
- 온타리오 감리교회 (전재홍, 909-986-6641)
- 유바사령의교회 (이진식, 925-279-1214)
- 월셔연합감리교회 (구진모, 323-931-9133)
- 은강연합감리교회 (홍종걸, 714-870-9991)
- 은혜연합감리교회 (한진호, 818-241-9352)
-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신상만, 805-302-1706)
- 좋은연합감리교회 (김두식, 916-987-9191)
- 주사랑연합감리교회 (김태호, 626-575-9191)
-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 (김범수, 310-473-1285)
- 카마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805-389-3161)
-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김용근, 818-541-0306)
- 태평양연합감리교회 (이도원, 323-255-3734)
- 도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 (강현중, 213-235-7659)
- 콘트리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 (김영래, 925-935-0191)
-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 (김규현, 559-299-0240)
- 희망교회 (김정민/가하나, 858-354-0009)
- 히스패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 (주활, 303-369-0600)
- 덴버연합감리교회 (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최우돈, 860-953-0141)

• **Delaware(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달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버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리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호, 678-431-7924)
해밀턴말한인교회(정찬용,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이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원홍연,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이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최기환,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중,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인디애나 주)**

블루밍턴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애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재,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근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캔자스 주)**

위치타해협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선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송명철,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릉재, 620-231-2540)

• **Kentucky(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우,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턴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다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힌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네바다 주)**

겨자씨한일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근, 732-613-4930)
그레이스벤델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저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자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근, 973-694-3880)
아콜리연합감리교회(안명홍,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디렉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이트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삼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최현덕,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스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패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오하이오 주)**

맨스필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광영, 580-237-6611)

• **Oregon(오리건 주)**

오래곤투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득신, 215-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애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홍정균, 215-542-5686)
 필라델피아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테네시 주)**

내슈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득진,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정,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창수, 409-554-0550)
 성누기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오한, 817-657-4559)
 윌리엄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인회중(김태이빛 281-541-6286)

• **Vermont(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턴사목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턴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턴한인교회(김영호, 703-448-1131)

• **Washington(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웨스트버지니아 주)**

헨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이대규, 262-658-1131)

• **GAUM(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 2022/01 | | | 2022/02 | | | 2022/03 | | |
|---------|-------|---------|---------|-------|---------|---------|----------|---------|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 01 | 창세기 | 1 | 01 | 창세기 | 27 | 01 | 출애굽기 | 1-2 |
| 02 | | 주일 | 02 | | 28 | 02 | Ash Wed. | 3 |
| 03 | | 2 | 03 | | 29 | 03 | | 4 |
| 04 | | 3 | 04 | | 30 | 04 | | 5 |
| 05 | | 4 | 05 | | 31 | 05 | | 6 |
| 06 | | 5 | 06 | | 주일 | 06 | | 주일 |
| 07 | | 6 | 07 | | 32 | 07 | | 7-8 |
| 08 | | 7 | 08 | | 33 | 08 | | 9-10 |
| 09 | | 주일 | 09 | | 34 | 09 | | 11-12 |
| 10 | | 8 | 10 | | 35 | 10 | | 13 |
| 11 | | 9 | 11 | | 36 | 11 | | 14 |
| 12 | | 10 | 12 | | 37 | 12 | | 15 |
| 13 | | 11 | 13 | | 주일 | 13 | | 주일 |
| 14 | | 12 | 14 | | 38 | 14 | | 16 |
| 15 | | 13 | 15 | | 39 | 15 | | 17-18 |
| 16 | | 주일 | 16 | | 40 | 16 | | 19-20 |
| 17 | | 14 | 17 | | 41 | 17 | | 21-22 |
| 18 | | 15 | 18 | | 42 | 18 | | 23-24 |
| 19 | | 16 | 19 | | 43 | 19 | | 25 |
| 20 | | 17 | 20 | | 주일 | 20 | | 주일 |
| 21 | | 18 | 21 | | 44 | 21 | | 26 |
| 22 | | 19 | 22 | | 45 | 22 | | 27 |
| 23 | | 주일 | 23 | | 46 | 23 | | 28 |
| 24 | | 20 | 24 | | 47 | 24 | | 29 |
| 25 | | 21 | 25 | | 48 | 25 | | 30-31 |
| 26 | | 22 | 26 | | 49 | 26 | | 32 |
| 27 | | 23 | 27 | | 주일 | 27 | | 주일 |
| 28 | | 24 | 28 | | 50 | 28 | | 33-34 |
| 29 | | 25 | | | | 29 | | 35-36 |
| 30 | | 주일 | | | | 30 | | 37-38 |
| 31 | | 26 | | | | 31 | | 39-40 |

| 2022/04 | | | 2022/05 | | | 2022/06 | | |
|---------|-------|----------|---------|-------|---------|---------|-------|---------|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 01 | 마가복음 | 1 | 01 | 시편-II | 주일 | 01 | 레위기 | 1 |
| 02 | | 2-3 | 02 | | 1-2 | 02 | | 2 |
| 03 | | 주일 | 03 | | 3-5 | 03 | | 3 |
| 04 | | 4-5 | 04 | | 6-7 | 04 | | 4 |
| 05 | | 6 | 05 | | 8-9 | 05 | | 주일 |
| 06 | | 7 | 06 | | 10-12 | 06 | | 5 |
| 07 | | 8 | 07 | | 13-16 | 07 | | 6 |
| 08 | | 9 | 08 | | 주일 | 08 | | 7 |
| 09 | | 10 | 09 | | 17-18 | 09 | | 8 |
| 10 | 고난주일 | 주일 | 10 | | 19-21 | 10 | | 9 |
| 11 | | 11 | 11 | | 22-24 | 11 | | 10 |
| 12 | | 12 | 12 | | 25-27 | 12 | | 주일 |
| 13 | | 13 | 13 | | 28-30 | 13 | | 11 |
| 14 | | 14 | 14 | | 31-33 | 14 | | 12-13 |
| 15 | | 15:1-41 | 15 | | 주일 | 15 | | 14 |
| 16 | | 15:42-27 | 16 | | 34-35 | 16 | | 15 |
| 17 | 부활주일 | 주일 | 17 | | 36-37 | 17 | | 16-17 |
| 18 | | 16 | 18 | | 38-39 | 18 | | 18 |
| 19 | 고린도전서 | 1 | 19 | | 40-41 | 19 | | 주일 |
| 20 | | 2-3 | 20 | | 42-44 | 20 | | 19 |
| 21 | | 4 | 21 | | 45-48 | 21 | | 20 |
| 22 | | 5-6 | 22 | | 주일 | 22 | | 21 |
| 23 | | 7 | 23 | | 49-50 | 23 | | 22 |
| 24 | | 주일 | 24 | | 51-53 | 24 | | 23 |
| 25 | | 8-9 | 25 | | 54-56 | 25 | | 24 |
| 26 | | 10-11 | 26 | | 57-60 | 26 | | 주일 |
| 27 | | 12 | 27 | | 61-64 | 27 | | 25 |
| 28 | | 13-14 | 28 | | 65-67 | 28 | | 26 |
| 29 | | 15 | 29 | | 주일 | 29 | | 27 |
| 30 | | 16 | 30 | | 68-69 | 30 | | 4 |
| | | | 31 | | 70-72 | | | |

| 2022/07 | | | 2022/08 | | | 2022/09 | | |
|---------|---------|-------------|---------|-------|---------|---------|-------|----------|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 01 | 사편III-V | 73-75 | 01 | 민수기 | 1-2 | 01 | 로마서 | 1 |
| 02 | | 76-77 | 02 | | 3-4 | 02 | | 2 |
| 03 | | 주일 | 03 | | 5-6 | 03 | | 3 |
| 04 | | 78 | 04 | | 7 | 04 | | 주일 |
| 05 | | 79-81 | 05 | | 8-9 | 05 | | 4 |
| 06 | | 82-83 | 06 | | 10 | 06 | | 5 |
| 07 | | 84-87 | 07 | | 주일 | 07 | | 6 |
| 08 | | 88-89 | 08 | | 11-12 | 08 | 고린도후서 | 7 |
| 09 | | 90-91 | 09 | | 13-14 | 09 | | 8 |
| 10 | | 주일 | 10 | | 15 | 10 | | 9 |
| 11 | | 92-97 | 11 | | 16 | 11 | | 주일 |
| 12 | | 98-102 | 12 | | 17-18 | 12 | | 10 |
| 13 | | 103-104 | 13 | | 19 | 13 | | 11 |
| 14 | | 105 | 14 | | 주일 | 14 | | 12 |
| 15 | | 106 | 15 | | 20 | 15 | | 13 |
| 16 | | 107-108 | 16 | | 21 | 16 | | 14 |
| 17 | | 주일 | 17 | | 22 | 17 | | 15 |
| 18 | | 109-112 | 18 | | 23-24 | 18 | | 주일 |
| 19 | | 113-118 | 19 | | 25 | 19 | | 16 |
| 20 | | 119:1-56 | 20 | | 26 | 20 | 고린도후서 | 1-2 |
| 21 | | 119:57-112 | 21 | | 주일 | 21 | | 3 |
| 22 | | 119:113-176 | 22 | | 27 | 22 | | 4:1-5:10 |
| 23 | | 120-125 | 23 | | 28 | 23 | | 5:11-7:1 |
| 24 | | 주일 | 24 | | 29 | 24 | | 7:2-16 |
| 25 | | 126-132 | 25 | | 30 | 25 | | 주일 |
| 26 | | 133-137 | 26 | | 31 | 26 | | 8-9 |
| 27 | | 138-140 | 27 | | 32 | 27 | | 10 |
| 28 | | 141-143 | 28 | | 주일 | 28 | | 11 |
| 29 | | 144-146 | 29 | | 33 | 29 | | 12 |
| 30 | | 147-150 | 30 | | 34-35 | 30 | | 13 |
| 31 | | 주일 | 31 | | 36 | | | |

| 2022/10 | | | 2022/11 | | | 2022/12 | | |
|---------|-------|---------|---------|-------|---------|---------|-------|---------|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 01 | 신명기 | 1 | 01 | 여호수아 | 1 | 01 | 마태복음 | 3-4 |
| 02 | | 주일 | 02 | | 2 | 02 | | 5 |
| 03 | | 2 | 03 | | 3 | 03 | | 6 |
| 04 | | 3 | 04 | | 4 | 04 | | 주일 |
| 05 | | 4 | 05 | | 5 | 05 | | 7 |
| 06 | | 5-6 | 06 | | 주일 | 06 | | 8 |
| 07 | | 7-8 | 07 | | 6 | 07 | | 9 |
| 08 | | 9 | 08 | | 7 | 08 | | 10 |
| 09 | | 주일 | 09 | | 8 | 09 | | 11 |
| 10 | | 10-11 | 10 | | 9 | 10 | | 12 |
| 11 | | 12 | 11 | | 10 | 11 | | 주일 |
| 12 | | 13-14 | 12 | | 11 | 12 | | 13 |
| 13 | | 15 | 13 | | 주일 | 13 | | 14 |
| 14 | | 16-17 | 14 | | 12 | 14 | | 15 |
| 15 | | 18 | 15 | | 13 | 15 | | 16 |
| 16 | | 주일 | 16 | | 14 | 16 | | 17 |
| 17 | | 19-20 | 17 | | 15 | 17 | | 18 |
| 18 | | 21 | 18 | | 16-17 | 18 | | 주일 |
| 19 | | 22 | 19 | | 18 | 19 | | 19 |
| 20 | | 23 | 20 | | 주일 | 20 | | 20 |
| 21 | | 24-25 | 21 | | 19 | 21 | | 21 |
| 22 | | 26 | 22 | | 20 | 22 | | 22 |
| 23 | | 주일 | 23 | | 21 | 23 | | 1 |
| 24 | | 27 | 24 | | 22 | 24 | | 2 |
| 25 | | 28 | 25 | | 23 | 25 | 성탄절 | 주일 |
| 26 | | 29 | 26 | | 24 | 26 | | 23 |
| 27 | | 30 | 27 | | 주일 | 27 | | 24 |
| 28 | | 31 | 28 | 요엘 | 1 | 28 | | 25 |
| 29 | | 32 | 29 | | 2 | 29 | | 26 |
| 30 | | 주일 | 30 | | 3 | 30 | | 27 |
| 31 | | 33-34 | | | | 31 | | 28 |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 ❖ 영어번역 김영실, 박길재, 양훈, 엄윤호, 홍사라, Ester Kim
-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중, 김진우, 박효연, 방승호, 배연택, 배혁, 서준석
유혁재, 이보영, 조기현, 조선형, 차세진
-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 (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김진우 목사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 NY)

❖ 주일 칼럼

오인호 목사 (창대교회, 한국)

이해인 수녀

이흥빈 목사 (대흥교회, 한국)

정창호 장로 (샌디애고한인연합감리교회, C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